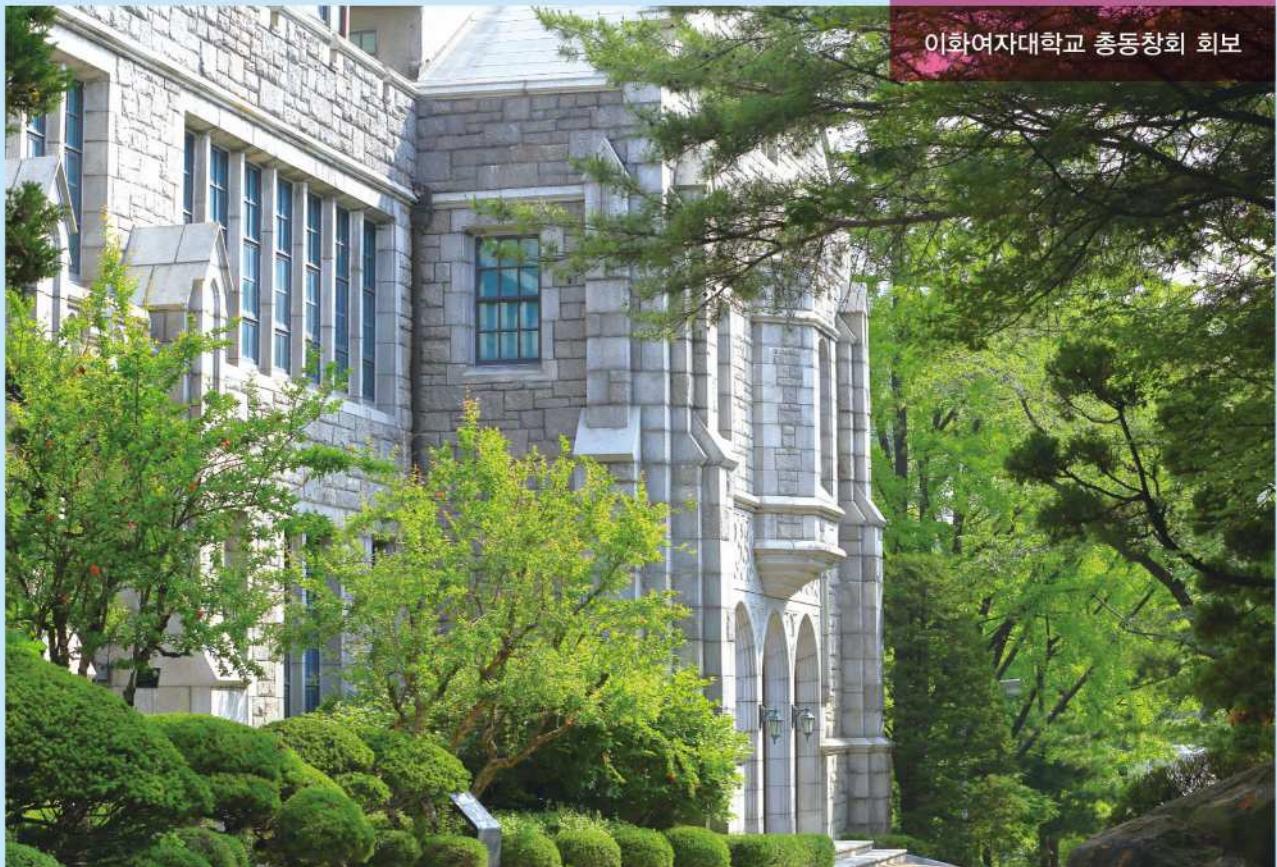


2021년 여름호 vol.163

# 이화 동창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2021 올해의 이화인 50명 추대  
빛나는 이화인 / 신해림·나효신·박신정·송명주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혼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3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4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 이화 동창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석류꽃을 품은 중강당의 녹음(綠陰)  
(2020)

##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2,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외 89, 편집위원)

발행 2021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1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03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그대가 바라는 이화, 미래의 모습을 그리자

## 09 2021 올해의 이화인

이영은 동창 외 49인

## 12 축하합니다

장필화 동창 외

## 14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이화에 새로운 등불을 예비해 주소서

## 17 특별기고 /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 특집

이화라는 잔칫집에 시집온 선생님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다

## 20 이화의 기도처 순례 / 김옥길 선생님의 기도가 깃든 야외 기도처 팔복동산

팔복동산에서 여덟 가지 복을 묵상하다

## 2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

24만 동창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한  
뜻깊은 시간

## 25 빛나는 이화인

신해림·나효신·박신정·송명주 동창

## 41 총동창회 소식

줌 화상회의로 4월 정기임원회 개최

## 45 선교부 소식

각 과 및 대학에 새로 선임된 선교부장 모임 가져

## 49 모교 소식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 53 대학(원) 소식 약학대학 외

## 54 과(학부) 소식 독어독문학과 외

## 59 지회 소식 디트로이트 지회 외

## 66 동창 근황 고 조화숙·현병우 동창 외

## 72 동창이 펴낸 새 책

『안희숙, 석영 딸의 못다한 이야기』 외



03



09



15



17



20



23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에서 머물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이화동산'을 둘러보니  
각양의 꽃들과 나무들이 여전히 아롱다통 다양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지저귀는 만 가지 새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 자락에 옷깃을 여미면서 문득,  
석조건물 한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45개의 화강암 계단을 숨이 멎도록 뛰어올라  
서서히 닫혀가는 대강당의 육중한 문을 밀어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던  
새벽이슬 같은 무리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면서…….  
치기 어린 때에 '이화'의 땅을 밟고 거닐 수 있었음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택임을 고백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새 중년의 때가 되어 135세를 맞이한 모교 '이화'를 바라보면서 짐짓,  
모든 지식과 총명이 보편적 가치요 삶의 풍성함을 매김하는 잣대였던 그 시절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발적 섬김과 나눔 그리고 자주적 돌봄으로  
모호한 간극과 고리를 넘어서는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참 가르침을 주셨던 믿음의 스승들을 기리며 선한 도전 받으면서…….  
오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도 진실되어 고뇌할 수 있음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뢰며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후에도 모교 '이화'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협통할 뿐 아니라 무릇,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두르심으로 피차 해아려 아우르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지극히 작은 일들을 소중히 품어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운 조각들로 면면히 꿰매고 옆에 이어감으로 인해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리며 기대하면서…….  
'이화' 안에서 당신의 얼굴 숨기지 않으시고  
'이화'를 통해 당신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이화'의 지면을 당신의 영으로 나날이 기름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일시 : 2021년 5월 31일(월) 오후 2시      장소 : 대강당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동창의 날 올해의 이화인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 그대가 바라는 이화, 미래의 모습을 그리자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31일(월) 오후 2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연속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현장 행사에는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과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 '빛 나는 이화인' 수상자와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 그리고 2021 '올해의 이화인' 등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하였다.

### 선배들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며

사회를 맡은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가 시작을 알리고, 곧바로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135년간 이화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린다”면서 “재학 시절 대강당에서 예배드리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 동창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을 바라보도록 도와 달라”며 기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이화 동산에



남상태 총동창회장

푸르름이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 캠퍼스에 모여 동창들과 담소를 나누던 지난날 이 몹시도 그립다”며 소감을 밝힌 후 “일상이 힘들고 마음이 위축되었지만, 온라

인 행사를 통해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행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받는다”며 감사를 표했다. 남상태 총동창회장은 제17대 김은미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총동창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18대 총동창회 임원진이 연임되어 동창회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되었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다가오지만 113년 총동창회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옥길 선생님의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앞서간 선배들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념식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 이화 정신 실천자 4명이 ‘빛나는 이화인’ 상 받아

이어 제6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는 신해림(의학 81, 세계보건기구 전 국장)·나효신(작곡 82, 재미 작곡가)·박신정(조소 85, 하슬라아트월드 대표)·송명주(과교 92, 삼성전자 전무) 등 총 4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순금 이화 마크 메달을 증정하였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이화 창립 130주년인 2016년에 제정된 상으로, 남상태 총동창회장은 “네 분동창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진선미의 이화 정신



김은미 모교 총장

을 실천하며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고, 후배들에게 진정한 역할 모델이 되었다”면서 “총동창회는 자랑스러운 이화 동창을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하여, 후배들에게는 소중한 멘토가 되고, 모교와 총동창회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수상자로 호명된 신해림 동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 여의사 최초로 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암 등록 사업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2015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신해림 동창은 10년 전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을 곱게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수상 소감에서 신 동창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본인이 잘하는 일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 파악해서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는 일을 한 다음 도전해 보길 권한다”고 조언하면서, “이화에서 가르침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대학교회를 다닐 때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던 김홍호 목사님, 동료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나효신 동창은 재미 작곡가로서 한국의 전통음악과 악기를 미국에 소개하여 한국의 음악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미국 작곡가·작가·출판사협회(ASCAP)가 주는 Plus Award를 1998년부터

매년 연속해서 받아오고 있다.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보내온 나 동창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빛나는 이화인이라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며 계속 정진하겠다”며 “한결같이 따뜻하게 응원해 준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해 왔다.

박신정 동창은 강원도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하슬라아트월드와 젊은달와이파크의 대표로서 공공미술의 공연에 앞장서고 있다. 박 동창은 “자연과 인간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모교에서 창의적인 작업들을 배우고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박 동창은 “앞으로 더욱더 성공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하라는 의미에서 이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수상자인 송명주 동창은 삼성그룹 대기업 여성 공채 1기로 입사해 전무까지 승진한 입지 전적인 성과를 이룬 전문 경영인으로, 태국 법인 근무로 가족이 대리 수상하였다. 태국에서 보낸 소감 영상에서 송 동창은 “이화에서 배운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자립심에 대한 태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리더로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에 기념품 전달

다음으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0명을 대표하여 이영은(피아노 91)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순서가 있었다. 50주년 대표 김화숙(의학 71) 동창과 30주년 대표 최명민(사복 91) 동창이 각각 재상봉 동창을 대표하여 기념품과 꽃다발을 받았다. 두 동창은 인사말을 통해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고 모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졸업 50주년 대표 김화숙 동창은 “입학해서 동대문병원의 빼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에서 수업했는데, 지금은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완공으로 최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어 무척 행복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며 모교가 최고의 캠퍼스와 최상의 병원을 갖게 된 것에 감격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과 한국에 있는 의대 동기들 29명이 기금을 모아 9,700만 원을 모교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동창들과 함께 이대서울병원 투어를 하면서 보았던 우아한 한옥의 보구녀관이 아름다운 신축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명물이 된 것을 보고 모두 감탄했다”고 전하며, “박에스더가 진료했던 보구녀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해림 동창



나효신 동창



박신정 동창



송명주 동창

되는 날을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졸업 30주년 대표 최명민 동창은 “이화 동산을 거닐던 대학 시절은 고민 많은 청년이었는데, 수준 높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배움과 감동,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이화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선후배 동창들이 손을 맞잡고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에서 견고한 연대 의식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이화의 가치가 세상에 널리 퍼져가길 바라는 의미로 교가의 끝 구절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화”를 낭독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하였다.

#### 김은미 총장, 이화의 슬로건과 비전 발표

이어서 김은미 신임 모교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며 모교 창립 135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포된 비전과 슬로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의 상징색인 이화그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이크 앞에 서서 동창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김은미 총장은 “올해 135년을 맞은 이화가 세계 최고의 명문 연구대학, 세계 최대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창 여러분들께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사랑과 기도, 지원으로 이화를 지켜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은미 총장은 오전에 있었던 창립 기념식에서 135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 〈Ewha Vision 2030+〉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을 발표하고, 이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2021년 그리고 그 후까지를 내다보는 2030+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의 발전 계획을 담은 비전 선포에 이어 새로운 슬로건을 선보였다.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Ewha, The Future We Create’를 발표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이화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자세한 내용은 52쪽 참조)

1부 마지막 순서로 ‘라풀라예술연구소’의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우리의 전통악기와 노래(창唱)로 연주한 곡 〈아름다운 나라〉(한태수 작곡, 채정은 작사)는 가야금 민세희(한음 14)·생황 김영은(한음 14)·타악 김영온(한음 19)·정가(正歌) 구민지(한음 21) 동창 및 피아노 조성란 씨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연주한 것을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감상했다. 노랫말처럼 “이 땅(이화)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고 흥겹게 부르며 코로나19로 지친 동창들을 위로하였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 올해의 이화인 50명 추대

1부 기념식 후 주종미(체육 92) 회우부장의 사회로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을 진행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자랑스러운 동창 50명 중 44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연분홍 한복 치마와 한정판 분홍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무대 위에 정렬하여 앉아 있다가 사회자가 각각 학과와 이름을



김화숙 동창



최명민 동창

호명하면 다섯 명 단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이를 화면에 클로즈업하여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여느 해와 달리 환호하고 박수쳐 주는 동창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올해의 이화인’들의 손에 들린 작약과 풍퐁국화 부케에는 24만 동창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담겨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해 보였다. 졸업 30주년 동창 가운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여 학과 동기들의 추천을 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올해의 이화인’들은 이제 모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

백소영(기독 91) 동창은 “졸업식 때 교정을 한 바퀴 돌아 대강당 계단을 올라 강단에 섰던 일이 바로 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났어요”라고 회상하면서 “각자 전공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도, 이화에서 배운 사랑, 희생, 봉사, 나눔, 진선미의 가치들을 각자의 삶 안에서 실천하느라 다들 투쟁해 온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백 동창은 행사 당일 급성 알레르기로, 성기영(정외 91) 동창은 허리 디스크 수술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행사를 마무리해 큰 응원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

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 동창도 많았다. 임석아(의학 91) 동창은 “동기들이 와서 함께 교정도 돌아보며 회상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못해서 아쉽습니다”라며 “학교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일하다 보니 이화에서 능력을 배양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는 임 동창은 이날 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에 진료를 보고 서둘러 나왔다가 식이 끝난 후에 다시 병원에 복귀해서 환자를 돌보고 밤 11시까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할 만큼 모교를 위해 열의를 보였다.

목승숙(독문 91) 동창은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된 것은 전공을 살려 그 길로 나아갔다는 의미로 생각해요. 양보한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며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로부터 시작해 모교와 100년의 인연을 맺은 이화인도 있다. 전혜인(특교 91) 동창은 친할머니가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를 3회로 졸업한 독립운동가 김복희(1901~1986) 열사이다. “할머니가



올해의 이화인 대표 이영은(오른쪽) 동창



올해의 이화인 단체 사진

생전에 손녀가 이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올해의 이화인’이 된 걸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머니를 통해 동향 후배인 유관순 열사와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함께 독립운동 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비롯해 선배님들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이화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지난 13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모교 이화역사관에서는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 2점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그중 한 장의 사진 속에 유열사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김복희 열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올해의 이화인’ 중에는 자매 이화인은 물론이고 어머니에 이어 ‘올해의 이화인’이 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최성희(사회 91) 동창은 어머니 한수자(법학 65) 동창이 80년에 ‘(과)동창여왕’ 이었다며 대를 이은 이화 사랑을 드러내며 기뻐했다.

2021 ‘올해의 이화인’ 대표를 맡은 이영은(피아노 91) 동창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고 싶어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만 초대하기로 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부모님께서 자랑스럽다고 축하해 주며 기뻐하셔서 효도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

이 들어 만난 ‘올해의 이화인’ 동기들과 대면 만남은 못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더욱 돋보인 우정을 쌓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소개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가운데 유대감을 쌓고, 힘을 합하여 이화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다짐하였다.

추대식이 끝난 뒤 ‘교가 제창’이 있었다. 모교 황규호(교육학과) 교수가 이화 캠퍼스의 사계를 직접 담은 사진을 배경으로 제작한 아름다운 교가 영상은, 온라인으로 참석한 국내외 동창들의 모교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 주었고 한 시간에 걸친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올해의 이화인’들은 아령당으로 자리를 옮겨 남상택 총동창회장 및 김은미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받고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드디어 대강당 바깥에서 기념식 영상을 보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과 만나서 추억이 깃든 교정에서 사진 찍으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 학교 식당마저 문을 닫은 고요한 교정 한편, 리모델링이 시작된 학관 건물의 공사 펜스는 정중동(靜中動) 속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하다. 24만 이화 동창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며 모교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창립 135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모교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46tI0N31\\_Rg](https://youtu.be/46tI0N31_Rg))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나라〉 축하 연주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2021 올해의 이화인 (1991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이승신(중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원



**김태연(김승은, 영문)**  
EBS 〈이지잉글리시〉 진행자,  
영어교육전문업체  
티와이콘텐츠 대표



**이선희(불문)**  
영남대학교  
유럽언어문화학부 교수



**목승숙(독문)**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백소영(기독)**  
강남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교수



**고유경(사학)**  
원광대학교 사법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성기영(정외)**  
KBS 아나운서,  
아나운서실장 역임,  
방송대상 아나운서상 수상



**유선실(행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혜전(문정)**  
이화여대 강사,  
청강문화산업대학 강사



**김희준(커미부)**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전 워싱턴 특파원



**최성희(사회)**  
㈜베리모먼트 대표



**이유림(사복)**  
서울YWCA 회장



**이미재(심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장



**함지영(수학)**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평생회원,  
전국대 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공동 창업자 및 부사장



**서민아(물리)**  
서민아(물리)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공동 창업자 및 부사장



**석혜선(화학)**  
특허법인 KBK파트너 변리사



**안지현(생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안클리닉 원장



**강성희(컴공)**  
명지대학교 교수



**이영은(피아노)**  
피아니스트, 전)선화예고,  
한세대, 성신여대, 목원대,  
서울장신대, 가톨릭대 강사



**구본희(관현)**  
LG사이언스파크 마곡 GS25 경영,  
베이징 온누리교회 찬양팀,  
고등부 교사 봉사



**이순화(성악)**  
성악가



**김소진(작곡)**  
피렐레스콰이어 지휘자



**송지선(종음)**  
송의여자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학생처장)



**이혜정(동양)**  
Artist & Space Developer,  
㈜오토리스아이디 대표



**안혜리(서양)**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육대학원 교수



**서혜영(조소)**  
작가



**오현아(섬예)**  
조형예술가,  
안수진조형연구소 공동대표,  
㈔이대 섬유예술과 강사



**송윤경(생미)**  
전)삼성문화재단,  
두원공과대학 재직,  
㈔에이디자이너스 아트 대표



**김애주(장미)**  
㈜버텍스디자인 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에이디자이너스 아트 대표



**허태숙(도예)**  
㈔청달아시아 대표이사,  
대한스쿼시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김양례(체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윤수미(무용)**

동덕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세계무용연맹 한국지부 부회장 사무총장, 세명대학교 강사



**이주연(교육)**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방은정(유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



**태명화(초교)**

서울 서래초등학교 교사



**정연정(교공)**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주)트리짓소프트웨어 대표이사



**전혜인(특교)**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신지선(영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교수



**이은영(과교)**

삼성 SDS Customer  
Experience 혁신팀 재직



**김아영(수교)**

전)이화여대 겸임교수,  
현)서울 봉립중학교 교사



**김권희(법학)**

(주)에스피케이 대표이사



**권수라(경영)**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아(국제사무)**

한양여자대학교  
비서인재과 교수



**임석아(의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소장



**최미선(간호)**

인천제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양현주(약학)**

한국다이이찌산쿄  
개발메디컬본부 전무



**황은경(제약)**

오거리약국 약국장,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서진(가관)**

제이아트 대표,  
3분의 기적 대표



**김선희(의직)**

김포대학교 교수,  
(주)인포마크 사외이사



**이윤화(식영)**

(주)다이어리얼 대표,  
시스템로 대표

#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장필화(영문 74) 동창

## 제19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

모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장필화 동창이 ‘제19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하였다. 장필화 동창은 1세대 여성학자로서 한국과 아시아 여성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5월 31일(월) 오전 10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식에서 이루어졌다.



이순남(의학 78) 동창

## 한국인 의사 출신 1호 국제공인 모금전문가

모교 명예교수 이순남 동창이 한국인 의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공인 모금전문가 (CFRE)로 인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CFRE는 8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 출신은 이 동창이 유일하다. 이순남 동창은 모교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은미(사회 81) 동창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김은미 모교 총장이 5월 20일(목) 온라인으로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8차 임시총회’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일한 민간위원이자 선출직 부위원장이다. 김은미 총장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수연(사복 85) 동창

## 제21대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선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수연 동창이 홀트아동복지회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5월 20일(목)부터 3년이다. 이수연 동창은 1985년 홀트에 입사해 올해로 36년째 홀트에 몸담고 있으며, 미혼모자 양육 시설과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시설장·관장·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정선(제약 88) 동창

###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취임

동서대 총괄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정선 동창이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이하 INWES) 회장에 취임했다. INWES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여성 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강수진(사회과교육 92)·이재은(커미부 12) 동창

### 제21회 이화언론인상 수상

강수진·이재은 동창이 제21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0년 12월 채널A 보도본부장에 임명된 강수진 동창은 종합편성채널 첫 여성 보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MBC 아나운서 이재은 동창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하며 각종 선거 방송, 올림픽 중계 등을 진행했다.



강선우(영교 02) 동창

###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강선우 동창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강 동창은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해당 상을 수상했다.

**‘꿈인’ 은**  
**전통 한복의 美를 살리면서**  
**다양한 소재와 트렌디한 장식으로**  
**한복을 연출하는**  
**토탈 한복 스타일링 전문샵입니다.**

방송\_ KBS극악한마당, 아침마당, 6시내고향  
 단체\_ 이화국악관현악단, 천안시립관현악단  
 기관\_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재재단, 국립국악원 공연 한복

**꿈인 한복 & 뷰티**  
 02-3472-0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래미안 서초유니빌 203~204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③, ④번 출구 바로 앞)

Hanbok & Beauty

## 이화에 새로운 등불을 예비해 주소서



안선희 모교 교육실장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



김혜련 동창 선교사

이화가 탄생한 지 135주년이 되는 올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강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모이고자 하는 열기로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었다. 대강당에서 예배를 올리던 감격을 잊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영상으로 제작된 덕분에 전 세계 24만 동창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감사찬양예배의 주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4:23)였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감사찬양예배가 이화인들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만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감사찬양예배를 통해 말씀대로 과정을 인도해 주셨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 24만 이화 동창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첫 순서는 종교음악과 동창합창단의 버추얼 콰이어 찬양이었다. 합창단은 다윗의 신앙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지휘: 이치복(종음 97) / 반주-오르간: 전은배(종음 96), 피아노: 김재희(종음 97))를 찬양하며 감사찬양예배의 문을 열었다. 이화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화와 24만 동창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이후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의 대표 기도가 있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이화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찬양예배



감사찬양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이화 동창들

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은총의 빛을 이화에 비춰  
주시어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렸다.

이어서 안선희(기독 88) 모교 교목실장이 '이화의 동창들을 생각하셔서'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 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워 주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왕상 15:4) 여기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적인 자손'을 의미하며, 기울어가는 국운을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왕, 아사 왕을 가리킨다. 교목실장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화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신실한 동창들을 통해 새로운 '등불'을 예비해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화인들은 선배 동창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인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신실한 이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중보기도와 찬양 고백, 간증 이어져

이후 이화 동창 선교사들이 준비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영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힘든 선교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와 국내에서 '오직 예수'만 불들고 역경을 견디며 사역을 이어가는 동창 선교사들의 찬양 고백은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며 힘든 상황도 견디며 나이가겠다는 선교사들의 귀한 결단을 귀로, 눈으로 듣고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의 기도에 이어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유경하(의학 84) 이화의료원장, 구해인(교대원 음악교육과 재학중) 이화기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유경하 이화의료원 원장



구해인 모교 재학생



종교음악과 동창합창단(왼쪽)과 동창 선교사 16명(오른쪽)의 찬양이 예배의 시작과 중간에 울려퍼지며 친미 예수를 드높였다

독학생연합 대표의 기도 제목과 함께 중보기도의 부탁이 있었고,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헌금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 시간 후에는, 아이티에서 선교하는 김혜련(정외 88)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다. 김 선교사는 졸업 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모두가 선망하는 UN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0년에 UN 직원으로 아이티 지진 피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와 목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받고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 뒤 김 선교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전하러 간 것처럼, UN이라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이티 선교사로 헌신하여 2013년부터 아가페학교를 세우고 길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를 해 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김 선교사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온전히 코로나 19가 낫는 기적의 경험을 전해 주어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교가를 부르며 진선미의 귀한 뜻을 가지고 이화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쳤다.

이번 감사찬양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에 응답하시는 이화 창립 예배였다. 이화의 24만 동창들이 세계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귀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글·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 이화라는 잔칫집에 시집온 선생님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다

오늘의 말씀(요한 2:1-11, 설교 제목 '넉넉한 잔치')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좀 빨리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그립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 말을 들으시면 “장상아, 너 가끔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 그것이 네가 배운 신학이냐?” 하실 것 같습니다.

추모하며 나누는 말씀은 가신 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절감을 합니다.

학생 시절, 선생님을 가까이서 처음 뵙 것은 애다 기도실에서였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항상 3~4명의 학생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끔 학생들을 살펴보시곤 했습니다. 팔복동산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40세에 총장직을 맡으시면서 “오늘 총장으로 취임한 이 시간부터 물러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이화만을 위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의 초석을 놓은 김활란 총장님을 이어받은 선생님은 이화를 세계 최대 여자대학교로 발전시키셨습니다. 5,000여 명의 학생 수는 8,000여 명으로 성장했고 교육의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 등을 목표로 (산업화와 세계화 시대에 맞는) 여성 인재를 키워내는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교육대학원을 비롯해 3개 대학원, 20개 학과 신설 및 학관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신축하셨습니다(교육관, 가정대학관, 음악관 등 7개 건물).

### 담대하고 지혜롭게 학생들을 보호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교육철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나라를 섬기는 인재, 정직한 인재, 헌신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대하고 지혜롭게 학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

1973년 11월 ‘유신 결사 반대’를 외치며 교문 밖으로 뛰쳐나간 4,500여 명의 학생 시위의 맨 앞줄에 선생님은 서셨습니다. 흥분한 학생들에게 “나를 밟고 나가라”고 만류하시면서 무려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뚝심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학생 데모대 진압을 저지하는 김옥길 선생님(1973년)

려고는 학생들을 설득해서 대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밤을 지새우며 학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지키시는 애정과 탁월한 지도력의 표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돋보이는 점은 원리원칙에 철저하시며,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한 판단력의 소유자이며, 학생을 끔찍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핵심을 째뚫어 보시는 통찰력, 그리고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설득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자그마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수학과를 졸업하고는 신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농촌 계몽을 갔다 와서 전보 한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숙사 사감으로 발령-총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무 착오라고 생각하고 그 전보를 들고 총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내가 알지. 그런데 장상이 하나님을 공부하겠다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기 전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기숙사가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통찰력과 설득력에 아무 말씀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문교부(교육부)의 최초 여성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문교부 수장으로서의 선생님의 교육관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을 때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철학이 뚜렷한 교육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명연설가이셨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메시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1972년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대표로 연설을 하시며, “서울과 평양이 몇 리가 됩니까”라고

호소하는 명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 한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더 깊은 까닭은 선생님의 뛰어난 지도력이나 명연설보다는 감싸는 포용력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넓고 깊고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잔치를 하시며 사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잔치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잔칫집으로 시집가겠노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화로 시집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화가 잔칫집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화인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생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문교부 전 직원을 냉면 잔치에 초대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청사의 관리, 경비원, 청소도우미까지 무려 1,000명이 넘는 손님을 대접하셨습니다. 주 메뉴는 물냉면과 빈대떡이었으나 따스함이 넉넉한 잔치, 즐거움이 넉넉한 잔치, 웃음이 넉넉한 잔치였습니다. 선생님의 미소와 웃음은 일품이십니다. 정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시는가 하면, 파안대소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호탕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푸근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정겨운 웃음소리가 또 하나의 메뉴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창조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인형은 아니시지만 목소리는 우렁차시고 웃음은 호탕하시고 눈빛은 총명하시고 가슴은 따뜻하신 미인이셨습니다. 멋쟁이가 아니시지만 빨간 옷을 즐겨 입으시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멋쟁이셨습니다. 부자가 아니

시나 끊임없이 남에게 베푸시는 후한 인심으로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1981년 회갑연 때 선생님이 거하시던 고사리의 집과 땅 모두를 이화에 기증하시는 베푸시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 정직과 헌신, 조국과 이화를 위해 기도하다

이 시간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저는 가나 잔치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성서에서 잔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궁극적으로 잔치는 하나님께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 가나 잔칫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칫집에는 사람이 많게 마련입니다. 가나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잔칫집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그 잔치가 넉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될 뻔하였으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인해서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 “주인도 아닌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마리아는 주인도 아니었으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마리아는 이 잔치에 깊은 애정으로 두루 살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다음 순간의 질문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리아의 접근입니다. 잔치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면 그 곤경을 예수님께

호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잔치가 가능하게, 넉넉하게 이루어지도록 두루 살피신 이화의 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정직과 헌신’ 그리고 ‘조국과 이화’가 늘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혼란, 한국전쟁, 군사 독재를 겪었던 선생님의 기도에는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조국이 있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절절한 기도가 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이화를 세우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화의 식구로 한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강당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화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신 신앙과 비전이 크신 선생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넉넉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장상(이화여대 제11대 총장)



\*이 글은 제8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장상 전 총장이 발표한 글입니다. 필자는 모교 수학과를 졸업(1962년)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신학 석사,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교 제11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현 WCC(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팔복동산에서 여덟 가지 복을 묵상하다

이화역사관과 법학관을 지나 기숙사 한우리집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왼쪽에 ‘이화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팔복동산’이라는 팻말과 함께 작은 동산으로 오르는 돌층계가 보인다. 계단을 사뿐 밟고 오솔길로 들어서자 24개의 나무 그루터기가 원을 그리고 있는 작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화의 기도처 중 야외에 있는 유일한 공간, 팔복동산이다. 이화 교정이 한눈에 내려다보일 만큼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성경 속 팔복(八福)동산처럼 이화의 큰 스승 김옥길 선생님이 한평생 나라를 위해, 이화

를 위해,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곳이다. 이화를 사랑하는 여러 교직원들이 모여 아침기도회를 갖던 장소이기도 하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덟 가지 복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어느 날 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며 여덟 개의 복을 선포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하다 박해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처럼, 이



김옥길 선생님과 이화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던 팔복동산. 아랫줄 중앙에 한복 입은 김옥길 선생님의 뒷모습이 보인다

공간 역시 넉넉한 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맞는다.

여름의 무성한 풀들이 푸릇하게 공간을 애워싸고 있는 팔복동산. 나무 그루터기 의자에 앉아 가파른 길을 오르느라 맷힌 땀방울을 잠시 식힌다. 들풀을 살짝 건드리고 가는 바람의 기척이 느껴진다. 작은 바람 소리에서 주님의 숨결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껴본다.

나무와 풀, 바람과 공기와 햇살이 기도의 좋은 동반자가 되는 곳이다. 자연과 하나 된 이 공간에서라면 내면의 어둠을 털고 빛을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서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을 묵상해 본다. 은혜와 충만의 시간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듯하다.

코로나19로 모교의 많은 공간이 문을 닫았지만, 팔복동산만큼은 언제나 열린 공간으로 기도에 목마른 자를 기쁘게 맞아 준다는 점 또한 고맙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24만 동창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한 뜻깊은 시간

총동창회는 4월 22일(목) 오후 1시 ‘각 과, 대학(원),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비대면 줌(Zoom) 회의로 열었다. 북미주, 아시아, 파리 지회 등 국내외에서 참석한 약 100여 명의 동창들은 글로벌 화상회의를 통해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화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에 서로 환담을 나누며 세계 곳곳에서 입장하는 동창들을 반갑게 환영했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의 인사말과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이 전하는 모교 소식, 2021년 사업계획 보고, 참석자 소개 및 지회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18대 총동창회장 연임과 신임 모교 총장의 인사말 이어져

성혜옥 선교부장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때에 동창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화상으로 만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24만 동창의 대표들이 세계 곳곳에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시각에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총동창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밤 중이지만 북미주 14개 지회장이 참석하였고, 아



시아 7개 지회 중 5개 지회장이 참석하였다”면서 파리와 자카르타 지회장의 참석도 반갑게 맞았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연임된 18대 동창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선배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후배의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함께 모으고 세대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하며 발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모교 제17대 총장으로 부임한 김은미 총장이 등장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라는 비전 아래 다섯 가지 이화 발전 목표를 세웠다”고 알렸다.(자세한 내용은 52쪽 참조)

이어 2021년 총동창회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획된 여러 행사의 개최 여부와 진행 방식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미경 총무는 ‘이화 가족 그림그리기 대회’는 작년에 이어 실시하지 않음을 알렸고, 감사찬양예배는 5월 11일(화)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올린다고 공지하였다. 이어 창립 135

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총장 초청 오찬 및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 재상봉 행사는 취소되었고, 단과대 학창 경연 및 몸풀기 체조 역시 열리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동창의 날 행사는 ‘동창의 날 기념식’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만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9월로 예정된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며,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작년에 취소했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은 올해에는 열리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덧붙여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가 법인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며, 모교 발전 기금을 낼 때 총동창회를 통해 모교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총동창회가 법인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 사진집『Kim Okgill Photo Album 큰 스승 김옥길』 출간을 알리고, 김옥길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참석한 동창들과 함께 보며 스승의 발자취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럽과 북미주, 아시아 각지에서 참석한 동창들**  
이어 참석자 소개 순서에서는 국내외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화상 회의로 처음 동창회에 참석하는 해외 동창들은 하나같이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늦은 시간임을 고려해 북미주지회연합회 부터 소개했다. 잠을 쫓으며 기다렸다는 포틀랜드 지회장 김미진(도예 79) 동창은 “한국을 떠나 온 뒤 한 번도 총동창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다



가 줌 회의에 참석하니 팬데믹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반겼다. 덴버 지회장 김선희(문정 94) 동창은 “늦은 시간이라 졸리지만 여러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고, 북텍사스 지회장 신동진(섬예 85) 동창은 “앞으로 한국에 있는 총동창회 임원과 전 세계 지회 임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연대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나가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호치민 지회장 원귀정(영문 89) 동창은 “작년에 설립된 막내 지회로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줌 회의와 야외 모임 또는 온라인 바자회, 동창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동창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리 지회장 윤애영(서양 88) 동창은 “코로나19가 밀지만 코로나19 덕분에 다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다”면서 닐스, 몽펠리에 등 멀리 떨어져 있는 동창들과 줌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자카르타 지회장 한경화(문정 85) 동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아서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올해에는 5~6명 정도 야외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스턴 지회장 한송희(사학 85) 동창은 “다음날 온라인 바자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

며 “이런 기회가 있어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디트로이트 지회장 황수영(화학 89) 동창 역시 “온라인 바자회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6,000달러를 모으는 성과를 올렸다”고 알렸다. 덧붙여 올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영상 총회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전 세계 동창들을 모두 초대하니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한편 국내 지회와 각 대학(원) 보고에서는, 의대 동창회장 성시열(의학 81) 동창이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보고하는 모습이 중계되어 현장감을 더했다. 성시열 동창은 “메리 스크랜튼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1856~1922)이 내년에서 거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보구녀관을 설립한 윌리엄 스크랜튼이 이화 역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며 그를 기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보고했다. 대학원 동창회 부회장 정혜중(사학 91) 동창은 올해 대학원 동창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영대 동창회장 윤은주(경영 89) 동창은 “동창과 재학생들 간에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동창회의 평균연령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문대 동창회장 이정화(독문 74) 동창은 동창들의 추억이 담긴 인문대 학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많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영문과, 기독교학과 등 인문대 각 과에서 보고를 통해 열심히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는 대학으로 모교 발전 도울 것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는 기독교 정신과 진선미 이념에 바탕을 둔 여성 리더를 만들어 내는 학교”라고 강조한 뒤, 각 과에서 선교부장을



한 명씩 임명하여 기독교 정신을 잘 이어가며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첨부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동창 선교사 130여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알린 뒤, 『동창선교사 기도 수첩』에 적힌 지역의 선교사들과 지역 동창회가 연락이 되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총동창회 선교부 30주년 기념집인 『이화의 선교행전』 출간을 알리며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차가 있는 세계 곳곳의 동창들이 동시에 만나는 회의인 만큼 회의 시간에 대해 논의도 진행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 선물 세트(마스크팩, 스카프, 포스트잇)를 우편 발송한다고 알렸다. 끝으로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 ‘Ewha Alumnae Virtual Choir’ 30여 명의 교가 합창 영상이 이어졌다. 채팅방에서 ‘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E-FAMILYSHIP 느끼며 기쁜 줌 회의 시간이었다’ ‘회의 준비와 진행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이 오가는 가운데 한 시간 반에 걸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게 되길 소망하며, 1년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며 폐회하였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빛나는 이화인 /

한국 여의사 최초 세계보건기구 국장 역임한  
신해림 동창

## 빛나는 역량과 경험 세상을 더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예방 연구와 관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이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 통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데 이어, 모교 총동창회 ‘빛나는 이화인’ 상을 받은 신해림(의학 81) 동창이다. 신 동창은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한국 여의사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직 국장을 맡고 있다가 4월 30일(일) 자로 1년 조기 퇴직했다. 퇴직을 축하드린다는 말에 “40년간 일했으니 축하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웃는 모습에, 숨 가쁘면서도 누구보다 보람차게 보냈을 신 동창의 지난 날들이 느껴지는 듯했다.

### WHO와의 첫 인연부터 전문직 국장이 되기까지

1981년 모교 졸업 후 석사, 박사까지 모두 모교에서 마친 신 동창의 세부 전공은 예방의학이다. 예방의학 분야는 공중보건학, 지역사회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더 나아가 WHO의 규정들과 관련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 신 동창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WHO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예방의학 분야 종사자들 중에는 WHO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의학 종사자들이 선망하는 WHO가 신 동창과 연이 닿은 것은 지난 1997년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로부터 3개월간 연수 기회를 제안받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부터다. 국립암센터에 있으면서 암 발생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암 등록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먼저 3개월간 국제암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수행해야 했던 것. 공동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WHO에서 직접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07년 지원해 WHO의 정규직이 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WHO에서의 첫 3년 동안 신 동창은 이전에 공동 연구를 수행했던 프랑스 리옹의 국제암연구소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의 암 등록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던 2010년, 신 동창은 WHO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 사무처 신영수 처장의 부름을 받고 프랑스 리옹에서 서태평양지역의 지역사무처가 있는 필리핀 마닐라로 날아갔다. 그때부터 신 동창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산하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및 환경보건국(Division of Healthy Populations and Environments)’의 만성질환과 건강증진팀 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름대로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



통가(Tonga)에서 있었던 건강증진재단 간담회 기간 중 한 학교를 방문한 신해림 동창



국립암센터 및 질병관리본부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워크숍에서(오른쪽 세번째가 신동창)

하고 소속 국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환경보건을 확립하는 일을 한다. 세 분야가 언뜻 별개로 보이지만,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신동창의 설명이다.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줄이는 등 건강증진이 필수적이고, 다시 건강증진은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등 건강한 환경을 확립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으니 환경보건까지도 이 사무국의 업무영역인 셈. 실제 관련 업무로는 서태평양지역에 소속된 27개국(현재는 37개국) 중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의 관련 분야 의료정책 개발과 해당 공공보건 관계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서태평양지역의 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신동창은 지난 2018년부터 국장을 맡게 됐다.

신동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영양건강조사는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의료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선진국이어서, 해당 사무국에서 진행한 사업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지난 2019년 5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보건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26개 회원국 40여 명의 실무자들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진행 중이던 은

평구보건소를 방문했던 일을 소개한다.

신동창은 “현재 서태평양지역 소속 국가 중 저개발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만성질환의 예방 및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비용으로 지속성 있는 보건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WHO에서의 마지막 한 해 동안 신동창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몸은 멀어져도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

WHO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지 생활이 잦은 데서 오는 고충도 없지 않았으리라. 신동창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영어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회의나 토론을 진행할 때,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를 설득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답답했다는 것.

반면 업무 자체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WHO의 다른 의사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 보건소, 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다양한 보건기관과 국립기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보건 관련 정책 개발과 입법을 위해 국회의

지원을 받는 과정 등 행정적인 부분까지 훤히 깨고 있던 신 동창에게 WHO의 업무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던 셈이다.

다음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들, 특히 세 딸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점이다. 1997년 국제암 연구소에 가기 위해 처음 한국을 떠났을 때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엄마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고3 수험생 막내를 두고 떠나야 했던 일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있다.

신 동창은 ‘자신이 집을 떠나서도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신 동창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의 직업을 부담스러워한다”며 겸손을 보이지만, 가족들에게 신 동창은 분명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아내, 며느리였으리라.

#### 봉사하며 사회로부터 받은 것 돌려주려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신 동창의 경우 지방 대학에서 국립기관으로, 다시 국립기관에서 국제기구로 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확실히 시야가 넓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자리가 높아지고 업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명감 또한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신 동창은 “지금 서태평양지역의 중·저소득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지나온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히 보건 분야의 발전 사례로서 우리나라를 제시할 수 있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국가들의 몇몇 실무자들은 빠른 발전, 눈에 금

방 보이는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신 동창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등은 정책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고 10년, 20년은 기다려야 빚을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동창처럼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어떤 마음 자세와 자질이 필요한지 조언 한마디를 부탁했다.

“우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파악하고, 한 분야에서 전공자로서 확고한 지위에 이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하고도 정석적인 조언이 돌아왔다. 또 개인 역량의 뛰어남도 중요하지만, 작업시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동창에 따르면 실제로 요즘 적잖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WHO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따라서 자신의 실력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국제기구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생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해당 영역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는, 신 동창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후의 계획을 묻자 “1년 동안은 쉬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동안 못했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제 경험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며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신 동창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 훌가분함이 느껴졌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끊임없이 찾는 신 동창의 마음가짐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이 솟았다. 앞으로도 신 동창의 빛나는

역량과 경험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성원한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 빛나는 이화인 /

현대음악과 전통 국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 음악 세계 구축한 나효신 동창

“작곡은 저의 천직,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곡을 쓸 뿐입니다”



거리상의 이유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인터뷰를 앞두고 나효신(작곡 82) 동창의 면면과 그의 작품 세계가 무척 궁금해졌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뒤져 마침내 북캘리포니아 한인방송 <KEMSTV24>에 출연했던 나 동창의 인터뷰 영상과 씨날창작음악연구소 주최로

열렸던 <씨날창작포럼14:작곡가 나효신의 음악 세계>라는 오디오 클립을 찾아냈다. 비록 오래전 자료였지만, 또렷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곡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하는 나 동창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작곡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와 알아듣기 쉬운 곡 해설, 그리고 국악의 향이 물씬 풍기면서도 세련된 멋이 묻어나는 작품들까지 감상하고 보니 나 동창이 지향하는 음악의 색조와 결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더욱이 나 동창이 작업에 임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고민하는지, 얼마나 깊이 몰두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며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작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 동창은 다양한 동서양 악기들의 공존과 충돌을 허락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올해 ‘빛나는 이화인’에 선정된 것에 대해 “훌륭한 동창들이 많이 계신데도 제가 이렇게 과분한상을 받게 된 것은 음악가의 활동이 워낙 눈에 잘 띠기 때문인 듯합니다”라며 겸손의 뜻을 내비쳤지만, 사실 나 동창은 대한민국 작곡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고(양악부문 1994, 국악부문 2003), 하버드대학교의 프롬재단상(1996)과 쿠세비츠키재단상(2002), 1998~2021년 ASCAP(미국 작곡가·작가·출판사협회)의 Plus Award를 매년 수상한, 현



모교 이화음악연구소 주최로 진행했던 '작곡과 작곡가의 삶'에 대한 강의

나효신 동창의 음악만으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던 미국의 현대음악 전문단체 'New Music Works'와의 리허설에서

대음악계에서는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은 실력파이다.

1982년 모교 작곡과 대학원 1학년 재학 중 도미한 나 동창은 샌프란시스코 음악원과 맨해튼 음대(석사)를 거쳐, 볼더의 콜로라도 대학(박사)에서 공부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오늘날까지 국립극장, 전주세계소리축제, 로스앤젤레스 국제현대음악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한국의 날 페스티발, 샌프란시스코 우든피쉬 양상불 등에 위촉 또는 초대 작곡가로 참여해 각종 공연 및 음악축제를 주관해 왔다.

같은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 나 동창의 남편 토마스 술츠 박사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스탠퍼드대학교 피아노과에서 후학을 양성해 오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는 매년 8월에 '토마스술츠 국제피아노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참가자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과 숙소를 제공한다.

나효신 동창의 작품 중 <걷고 또 걷고(Walking, Walking)>(2003)는 태평양의 절경이 내려다보이는 산속에 지어진 외딴집에서 6주 동안 자신을 '의도적으로 고립' 시킨 가운데 탄생한 곡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며 그 경험을 일기처럼 쓰고, 걷는 행위와 치열한 사색을 병행한 끝에 얻은 결실이다. 또한 정가악회(국악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전문국악단체) 샌프란시스코 초연 작품인 <이 세상

의 모든 소리>All the Noises in the World, 2008>는 대금·피리·해금·가야금·거문고·장구와 다른 타악기가 어우러진 곡으로 듣는 내내 현대음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참신한 재미를 선사해 줬다. 나효신 동창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 모교 작곡과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 중에 도미하셨어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서양의 작곡가에 대한 책을 읽으며 자라서였을까요? 웬지 아주 어릴 적부터 서양에서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대학생이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유학을 준비한 듯 합니다.

■ 저서 『황병기와의 대화』를 출판하셨는데요. 현대국악을 개척한 모교 한국음악과의 고 황병기 교수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1978년 봄, 작곡과 신입생이었을 때 어느 연주장에서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미궁>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리들로 가득 찬 작품에 매료되어 공연장을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모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약 20년 후인 1998년, 샌프란시스코의 헤브스트극장에서 황 선생님과 제 작품들로 이루어진 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작품들로만 하기

로 했던 공연이었는데 제가 무대 절반을 선생님께 드립으로써 언젠가 선생님과 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이뤘죠. 그후 1999년에는 두 달 동안 서울에 가서 선생님께 가야금을 배우게 됐는데, 가야금 연주법 외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2000년 가을 다시 서울에 가서 선생님을 일곱 차례 더 인터뷰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1년 『황병기와의 대화』(한·영문판)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음악을 더 많이 공부하셨어요. 한국 음악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미국에서 한국 음악을 공부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따로 배운 적도 있지만 제가 가진 지식은 매우 얕은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맨해튼 음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화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면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을 횡단해 뉴욕까지 갔어도 아무런 ‘문화충격’이 없는 것이 제가 잘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차차 제가 잘 배우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무식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대 대학원 학생으로서 서양 음악을 공부하는 한편으로 혼자 한국의 전통음악을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직후부터는 가야금·거문고·아쟁·해금·장구·북 등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비행기 타고 전주까지 날아가 판소리를 배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호텔에 머물며 단기간 동안 악기를 배우는 것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척 아쉬웠어요.

■ 한국 전통 악기를 위한 수많은 음악을 만드셨는데요, 서양 악기와 차별화된 한국 전통 악기만의 멎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한국의 거문고는 ‘치터(Zither)’ 악기면서 동시에 ‘꽤(Frets)’라는 자판이 있습니다. 서양의 바이올린은 줄의 길이로 음의 높이를 결정하는 반면, 거문고는 이 폐 위에 엊어진 줄을 짚은 후에 강하게 밀어서, 즉 줄의 길이 외에 줄의 장력으로도 음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이런 연주법을 역안법이라고 부르는데 역안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합니다. 중국 및 일본과 서양에서는 현을 가볍게 짚어 연주하는 경안법을 사용하지요. 이런 차별성이 있지만 저는 한국의 전통 악기나 서양 악기, 그리고 다른 동양 지역의 악기, 어느 것 이든 그 악기만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성격을 배우고 존중하며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려 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동시에 내 것을 양보하지도 않는 음악 만들기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수많은 작품 중 가장 힘들게 작업했던 곡은 무엇이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작품을 쓸 때 저는 이전의 작품도 이후의 작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작품 하나만을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 딱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작품은 셀 수 없이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초연 이후 조용한 작품도 있지만, 제계는 모두 소중한 작품입니다.

■ “작품을 만들 때 어려웠던 것은 슬쩍 속이기를 안하는 것, 내가 설정해놓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었

다”는 <씨날창작포럼14>의 말씀에서 창작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저는 가능한 한 작품을 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장은 늘 사용해야 녹슬지 않고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둘째, 음악이라는 ‘살아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으로써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저는 음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작품 쓰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때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면서도 제 일을 즐길 만큼 좋아합니다. 오늘 제 일을 마치는 순간에 제가 어떤 음악을 쓰고 있을지 안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쓰는 이 작품의 마지막 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저

난 40여 년 동안 작곡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작곡 활동은 직장이나 커리어 혹은 권위 있는 지위가 아닌 오직 천직일 뿐입니다.

■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현재 올 9월 국립극장 재개관 기념 공연에서 초연할 국악관현악곡을 쓰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의 국립국악관현악단 위촉곡입니다. 이 작품을 마친 후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사중주, 그다음에는 ‘메조소프라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오중주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어느 음악가 혹은 음악단체가 세계 작품을 의뢰할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편성이든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곡을 쓸 겁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빛나는 이화인 /  
하슬라아트월드 대표 겸 조각가 박신정 동창

## 자연에 기대어 예술을 경영하다



강릉 ‘하슬라아트월드’와 영월 ‘젊은달와이파크’의 대표 박신정(조소 85) 동창은 강원도에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관광사업과 공공미술의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하슬라아트월드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산업관광지 20선’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리

아유니크베뉴'로 선정되었다. 또한 젊은달와이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0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 《이화동창》과의 인터뷰 직전에도 습관처럼 잠깐 동네 마을을 둘러보고 왔다는 지역 사랑쟁이 박 동창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예술가의 서정성으로 사업에 도전해

조소과를 졸업하고 순수 예술 작업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하게 된 것은 박 동창이 지닌 예술가적인 서정성 때문이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소한 사물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공간에서도 큰 감동을 받곤 해요. 그런데 5~10년 지나면 그런 사물과 공간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 또한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어요. 예술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니 그 공감은 결국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사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현대미술이 대중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술가로서 창작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곱 번 정도 개인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현대미술이 대중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랑이나 미술관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복합’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 삶의 다양성을 녹여내어 도시 자체가 품어 주는 향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미술관 밖으로 나와서 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경영하게 되었죠.”

‘하슬라’와 ‘젊은달’은 모두 박 동창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대구에서의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강릉원주대학교 조소과 최옥영 교수, 대지 예술가)의 고향인 강릉으로 2000년에 온 박 동창은 새로운 공간의 이름을 ‘하슬라’로 정했다. 고구려와 신라 때 강릉의 우리말 지명으로, 큰 바다 혹은 아름다운 자연의 기운을 뜻한다. “누구든 문화에 누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예술에 기대어 자연을 보는 공간이길 바라며 ‘하슬라아트월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인간과 자연과 예술의 결합을 지향하며 이름을 지었는데 당시에는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조각공원만 있던 시대에 매우 생소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추구했던 것이다.

2019년에는 ‘젊은달와이파크’를 영월에 만들어 냈다. 영월 지역에서 하슬라팀의 유치를 제안하여 기존에 있던 술샘 박물관을 ‘젊은달와이파크’로 재탄생시켰다. “영월에 가보니 조용하고 깨끗하고 자연도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박물관 고을’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없고 마을이 전체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들었어요. 젊고 활기찬 기운이 필요하다 싶어 영월의 ‘영’을 영어 Young ‘젊은’으로, ‘월’은 한글 ‘달’로 풀어 ‘젊은달와이파크’가 되었지요. 젊은달을 오픈하고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점은 영월에서 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도시에 활기가 생기고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월이 점점 젊어지는 이유, 젊은달와이파크’라고 딸이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지요.”

박 동창은 강원도의 도시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어떤 도시는 소멸 도시로까지 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슬라와 젊은달 같은 예술적 접근을 통해 강원도가 힐링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강원도의 명소인 복합문화예술공간 하슬라이트월드



창작 예술가들을 위해 운영 중인 하슬라 레지던시에서 작업 중인 예술가

하슬라의 정면은 정동진 앞바다, 뒤는 꽈방산이다. 이곳은 자연의 소리와 빛, 바다, 산 그리고 상쾌한 에너지 등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박 동창과 대지 예술가인 남편이 함께 선택한 땅이다.

하슬라는 3만 3,000평 부지에 오픈했지만, 향후 확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15만 평이다. 메인은 미술관이고, 객실 22개 규모의 호텔이 있으며, 야외에는 산과 바다를 캔버스 삼아 조각, 대지 미술, 설치 미술 작품들이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창작 예술가들을 위한 하슬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박 동창은 하슬라의 정규 직원 35명 외에도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하슬라 레지던시

하슬라 레지던시는 작가들이 하슬라이트월드에 거주하면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한국의 문화와 융합하고 교류하며 예술가에게는 기회를, 관람객에게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박 동창의 레지던시 경험이었다.

“미국 Vermont Studio Center에서 레지던시를 경험했던 것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또는 기부금으로 조건 없이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놀랐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유행처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00년도 당시에는 처음 접하는 문화였던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2005년에 시작된 하슬라 레지던시는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하슬라 레지던시 운영 초기에는 작가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예산으로 문화재단들이 레지던시들을 운영하다 보니, 저는 핵심적인 작가들만 초청해서 지원합니다. 저희는 누구의 지원이나 간섭 없이 운영하니까 작가의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형평성의 문제 없이 다음에도 또 초청하여 하슬라에서 작업을 완성해서 전시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 저 또한 레지던시에 오는 작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작가들의 나라에 대한 정보도 듣고,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요.”

이제는 하슬라 레지던시 경험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호치민 대학 교수를 포함한 호치민 핵심 작가들 8명은 어렵게 한국에 왔다가 하슬라 레지던시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경우다.

“호치민 작가들이 호치민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는 많은 베트남 신부들과 섞여 긴 줄을 서서 비자 심사를 받았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슬라에서 초청장과 항공료를 다 보냈는데도 계속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작가 중 한 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한국에 안 간다고 서류를 찢어버리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이메일을 통해 작가들에게 사과했는데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호치민 주재 한국 외교관에게 호치민 작가들한테 사과 전화 한 번 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호치민 작가들이 하는 말이, 그 외교관이 직원과 함께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력 있고 따뜻한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호치민 작가들이 베트남 밖으로 나온 첫 세상이 한국의 하슬라 레지던시였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인사동도 갔지요. 그 작가들 중에 한 분은 바이어나 콜렉터들도 주목하는 작가가 되었고, 호치민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작가는 대학 컴퓨터 본인 메인창에 하슬라 사진을 올려 놓았더군요. 베트남 쪽에서는 하슬라 레지던시가 하나의 프로필로 올라가게 되어서 지금도 하슬라 레지던시에 오기를 희망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경제 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문화적 선진국으로 국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슬라 뮤지엄호텔, 예술에 누워 자연을 바라보다

하슬라 뮤지엄호텔은 모든 객실에서 강릉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객실 내부의 가구와 인테리어

는 박 동창과 남편인 조각가 최옥영 교수의 아이디어와 작품이다. 부부 조각가로서 공간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보니 일반적인 가구들을 들여놓기를 거부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준공 날짜도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

“레지던시 관련 포럼 참석차 간 미국에서 뉴욕의 여러 미술관을 관람한 후에 보스턴 미술관을 갔더니 몸이 지친 상태라 미술관 내에서 쉴 곳을 찾아간 곳에 일본 전통정원(가례산스이)이 잘 가꾸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국 정원은 무엇으로 한국 것임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경주 사람이다 보니 포석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뮤지엄호텔 객실에 포석정에서 영감 받은 흐르는 물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객실의 침대는 ‘엄마의 자궁’을 무한의 영역인 우주로 보는 남편의 작품이지요. 그리고 객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바다가 인테리어라는 생각에 창문을 최대한 크게 해서 일출과 석양을 모두 볼 수 있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호텔은 자연광보다는 조명을 이용하는데 하슬라 뮤지엄호텔은 자연광을 그대로 실내로 들여다 보니 작은 면지 하나도 다 보이는 관계로 일이 많다. 파격적인 디자인이고 작품이긴 하지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보완을 하는 식으로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박 동창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하슬라 뮤지엄호텔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버시바우 전 대사, 스티븐슨 전 대사, 성김 전 대사 그리고 외교관들이 투숙했다.

“버시바우 대사님의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저희 호텔 공간을 많이 좋아하셨지요. 스티븐슨 대사님 재임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 외교관

들이 투숙했는데 그중에 언더우드 씨가 계셨어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후손이었지요. 저희 호텔에 투숙한 날이 4대 위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입항을 통해 한국에 온 1885년 4월 5일과 같다고 하더군요. 130여 년 만의 한국의 변화에 대한 감회를 스케치북에 그림과 글로 저희에게 남겨주고는 자전거 여행을 좋아한다는 언더우드 씨는 자전거 타고 대관령을 넘어 가셨지요.” 박 동창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 받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지만 어려움 역시 적지 않았다.

#### 건축 인허가, 태풍 루사, 그리고 코로나19

“교수로 살아온 14년보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2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산꼭대기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된 여러 관공서의 허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바닷가가 전방이라서 군부대의 협의도 필요했어요. 관공서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가타부타 소식이 없어서 제가 국토부에까지 확인했더니 ‘가능한 일인데 현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답변을 해당 관공서에 직접 전달하여 일을 진행하기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건물을 지은 후에 바로 팔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2002년에는 1904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일일 강우량인 870.5mm의 비를 강릉에 쏟아부은 태풍 루사로 인해 작업장에 있던 작품들이 떠내려 가버린 일이 있었다. “야외 공간에 전시하려고 했던 큰 작품들이 모두 다 떠내려 가버려

서 피해가 컸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하슬라아트월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60%가 감소해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조용할 때 작품을 만들거나 일을 벌여요. 서비스 파트 직원들은 유급 휴직에 들어갔지만, 제작·시설 파트는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투자해서 시대에 맞는 공간으로 변신을 했더니 해외 관광을 못 하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을 찾던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놀라워하고 있지요.”

#### 대가족을 조화롭게 이끈 부모님께 받은 영향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는 박 동창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이다.

“할머님과 부모님 그리고 조카가 있는 오빠네 가족과 함께 경주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92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다음 해에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며느리가 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신 거죠. 어머니는 큰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용하게 관계를 조율하면서 집안 경영을 잘한 분이셨고, 사업을 했던 아버지는 거침없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혼한 후에 태어난 동생을 포함해서 친척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본 분이셨어요.”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과 친척을 보살피고 가정과 사업을 경영했던 모습은 박 동창에게 하나의 지침표가 되었다. “일을 하다 보면 저에게 당장은 이익이 없는 일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하다가도 부모

님 생각이 나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전체에 이로운 일인가?’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거지요.”

여자도 공부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박 동창은 이화여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화에서의 학창 시절 하면, 경주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여러 면에서 개성이 강한 친구들의 솔직한 표현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던 것과 좋아했던 대강당 채플 시간이 생각나요. 채플이 있는 날 대강당 문이 닫히기 전에 땀 흘리며 계단을 뛰어올라가 자리에 앉았을 때의 어두컴컴하면서 선선한 공간이 주는 느낌이 기억에 남아요. 헷빛 짹한 대강당 문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의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의 교목님 말씀 시간과 가끔 영문과 교수님이 영시를 읽어 주셨던 시간도 좋았지요. 또한 대강당에서의 졸업식 때는 김옥길 총장님의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박 동창은 이화 후배들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당부한다.

“우리 이화의 동창이라면 사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양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일을 통한 경험에서 얻어진다고 봐요. 내가 원하던 길뿐만 아니라 약간 비껴 나가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도 다 원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무궁무진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박 동창은 깊이 있는 작품 구상, 미술관과 인연이 있는 작가들을 위한 새로운 기획, 강릉·영월에 이은 또 다른 도시에서의 사업 등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예술가의 감성과 다양한 사업 경험으로 박 동창이 세상에 내놓을 앞으로의 작품들이 기대된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빛나는 이화인 /**  
오픈 마인드의 글로벌 리더 삼성전자 전무  
송명주 동창

## 밥 푸는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뢰를 쌓다



송명주(과교 92) 동창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소비자 가전 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1993년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대졸 사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리

빙사업부 수출그룹, 미래전략그룹, 생활가전 사업부 공조마케팅팀, 동남아 총괄 마케팅팀을 거쳐 상무로 재직했고, 2020년에는 가전 마케팅 전문가로 프리미엄 제품군 판매 확대와 마케팅 데이터 및 유통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주도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전무로 승진했다.

### 태국 안에서 태국 바라보기

2009년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9개국을 지원·관리하는 지역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송 동창에게 태국은 낯선 곳은 아니다.

“들판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사람과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태국에는 출장도 자주 왔었고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다른 태국의 면모를 봅니다. 온화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화를 잘 내지 않는 태국 사람의 특성이 맷고 끊임이 중요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작용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태국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라는 어려움도 있고요.”

삼성전자 태국 법인은 정규직 400명, 비정규직 220명 규모로 한국인 주재원은 4명이다. 이곳에서 송 동창은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가 태국 법인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신뢰 구축입니다. 태국 고용시장 상태에서 급여만으로는 우수한 인력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것이 제 부임 전 조직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어요.”

송 동창이 전략기획팀에 있을 때부터 해오고 있는 ‘밥 푸는 리더십’이 태국에서도 행해지는 순간이다. 송 동창은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며 신뢰를 쌓았다.

“리더가 부하의 마음을 얻으면 병력이 부족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고 당신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기꺼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단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 주고 코칭해 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밥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송 동창은 태국 직원들에게 삼성에는 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격려한다. 밥 푸는 리더십에 더해 송 동창이 상무 재직 시절부터 해온 주기적인 이메일 소통 또한 태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태국 법인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이메일을 받는다. 이메일의 내용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회사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등이다. 송 동창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어느 순간 업무 끝단에 있는 막내 직원이 ‘왜 위에서 이 일을 시키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라고 한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서 지시했는데 지시 내용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본래 취지가 바뀌게 되면 직원들이 다들 제각기 열심히 일해도 조직에는 성과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 모두가 같은 목표를 지니고 일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태국 법인에서는 저 혼자 이메일을 쓰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 사람의 의견만 전달하게 될 듯하여 월요일 오후 미팅의 결과를 각 사업부문의 현지인 부서장 6명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송 동창은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해외 론칭한 BESPOKE 제품의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BESPOKE 제품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에 맞춘 겁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한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 기회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한 Me 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대는 ‘나’ 그리고 ‘내가 사는 공간’이 중요하고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을 잘 반영한 것이 BESPOKE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태국에서 론칭하면서 태국의 밀레니얼 소비자들에게 그냥 큰 기업 이미지의 삼성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고 대변하는 삼성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또한 한 번 구입해서 몇 년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구성에 맞춰서 모듈화하고 바꿀 수 있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도 부합하는 제품이다’라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시장에서 1등 하기

“태국 가전제품 시장점유율로 보면 저희가 TV는 13년째 35% 정도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 냉

장고는 20%로 일본의 모든 브랜드를 제치고 작년부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그동안 2등이었는데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업체가 공급이 어려울 때 저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점유율은 거의 60%로 한국 제품이 장악하고 있지요.”

그러나 태국 가전제품 시장에는 1980년대부터 진출해 있는 일본 제품과 맹렬하게 쫓아오는 중국 제품들이 있다.

“중국의 추격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분야에서 한국 제품은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으니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돈을 내고 구입할 만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제품은 중국의 내수를 벗어나면,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소비자들이 선뜻 구입하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유통에 있어서도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값싼 물건을 많이 파는 것에 주력하지만 삼성은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교육하면서 리딩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방법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되어 중국과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 대출 여성 공채 1기, 남녀 구분 없이 일해

생물교육학과(현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송 동창은 학교 교사보다는 좀 더 역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졸업 후 방송국 PD 시험을 준비했다. 동화구연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예뻐해서 〈당동댕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PD 시험에는 떨어지고 시험 과목이 비슷했던 삼성 최초의 대졸 여성 공채에 응시해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상품기획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프리미엄 고객들과 함께한 송 동창(가운데)



방콕 거래처 직원들과 찍은 사진(오른쪽 두 번째)

“신입사원 시절에, 어렵고 힘든 일은 같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해서 가장 막내였던 제가 라면박스에 도시락 25개를 넣어서 들고 나타났더니 남자 선배가 깜짝 놀라면서 ‘여자가 이런 일을 하냐’고 하길래, ‘여자도 기운이 되면 다 하는 거지. 이게 남녀가 구분이 있느냐’고 했어요. 신입사원 시절에 ‘여자가 이런 일을 하냐’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자도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싶었지요. 쳐우나 기회에 있어서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힘든 일은 여자로서 안 하겠다는 자세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 동창은 입사 10년 차에는 핵심 부서인 글로벌전략그룹(GSG)에 지원했다. GSG는 1997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 아이비리그 등에서 MBA 출신 인재를 뽑아 삼성 계열사 컨설팅을 맡기던 곳으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과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송 동창은 GSG의 인사·기획·총무 등 지원을 맡았다. 이곳에서 송 동창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실행이 따르는 외국인 동료들의 업무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문화 적응력을 기르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 싱가포르 주

재원으로 일할 때 도움이 되었다. 송 동창은 외국인 동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해 하우스 파티를 했는데 그들은 지금도 파티 이야기를 한다. GSG의 동료들과 쌓은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고민거리를 다른 나라나 산업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의뢰하면 GSG에서 순서도 깔끔하게 타임 프레임과 같이 보내 주니, 그걸 그대로 태국 법인에서 실행합니다. 회사 내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고 항상 직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성과를 내려 하면 나의 아웃풋은 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실제 시장의 데이터로 승부수를 두다

송 동창은 GSG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동남아 9개국을 지원·관리하는 지역프로젝트매니저가 됐다. 송 동창은 동남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6위를 하던 에어컨에 주목했다.

2009년 당시 동남아에는 삼성의 에어컨 제조공장이 없어서 소비자 가격이 비쌌고 제품 라인업도 빈약했다. 연구 끝에 송 동창은 첫째, 마이너스 옴션을 적용해 냉방기능만 있는 에어컨을 생산하는 것과 둘째, 물류비·재고비 감소와 현지에서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동남아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사업부를 설득했다.

“에어컨 제조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투자, 물량에 대한 가시화가 있어야 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장에서 에어컨을 얼마나 어떻게 팔 수 있는지 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했어요. 제가 동남아 시장 안에서 진짜 시장의 상황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 스스로 먼저 확신을 갖고, 윗분들과 저의 팀에도 확신을 줄 수 있게 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종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에는 반대가 나올 수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한 분씩 설득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일본은 동남아에 원조를 가장 많이 한 나라로, 동남아에서 막강한 선망성과 로열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현지에 에어컨 제조공장을 만들고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하고 끈질긴 근성으로 에어컨 시장점유율을 3위까지 올렸고 송동창은 상무로 승진해 2014년에 귀국했다.

송동창은 상무로 승진한 후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시했다. 베트남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삼성에서 공급하지 않고 있었고,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파악한 송동창은 현지 주재원을 비롯한 관련 팀들과 함께 필요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플래닝해서 투자를 받는 전쟁을 치르며 성과를 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힘이 됐던 것은 데이터였다.

“처음에 사용한 데이터는 가공된 2차 데이터(Secondary Data)가 아니고 삼성의 글로벌 법인들이 매장의 리테일 단계부터 끌어오는 숫자 데이터(Numeric Data)입니다. 오늘 H마트 논현동 매장의 냉장고 어떤 모델이 몇 대 팔렸고, 이번 주에는 몇 대 팔렸는지 하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3~4년치를 보면 월별, 제품별 트렌드는 예측이 가

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1만 대 팔리던 제품이 이번주에는 5,000대 팔렸는지 이유를 설명하려면 정성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소셜 리스닝(Social Listening)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판매에 대한 계획을 선행적으로 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삼성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셜 리스닝 기법을 마케팅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영업 프로세스를 혁신한 송동창은 전무로 승진하여 현재 태국에서 거래처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고 그들을 축하하고 응원한다. 물론 고객에게 맞는 제품 선정, 가격 결정 및 잘 정리된 매장 전시는 기본이다. 경쟁사보다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한발 먼저 하여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제품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송동창은 이화의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삼성 임원단에서도 우수한 인재에 대해 항상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능력은 훈련되고 육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능력이 쌓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녀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수용하고, 배우기도 해서 결국은 학습 효과로 나에게 업무 역량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긍정은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생각해 보면 스스로 기회가 열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총동창회 소식

## 줌 화상회의로 4월 정기임원회 개최

4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4월 정기임원회가 줌(Zoom)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보고, 찬송가, 기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와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안건 토의가 이어졌다.

우선 줌으로 진행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평가했는데, 국내외 동창이 공간을 초월해 참석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주요 행사인 각 과·대학(원), 국내외 지회장 간담회,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동창의 날 기념식에 대한 세부 토의도 진행했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1년 4월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사진집 발간을 위해 김옥길 선생님과 함께한 동창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각종 자료를 대외협력

처에 보냈음을 알리고, 기념예배와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안내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발간한 『이화의 선교행전』을 모교 관련 동창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와 관련 정현미(법학 82) 법대·법전원 교수가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법인 설립을 위해 정현미 전 법대·법전원 동창회장과 법률자문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칭)이화동창미래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함을 알리고, 단체를 대표할 좋은 명칭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동창회 임원으로 새로 선임된 최혜정(한음 90) 지역부장과 주종미(체육 92) 회우부장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은 《이화동창》에 광고 후원을 요청하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각 단대별로 연 1회의 광고 후원을 부탁하였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총동창회 운영이 어려우리라 예상되니 임원들이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2021 올해의 이화인 50명 추대 발대식 열어

총동창회는 2021년 4월 17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1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을 가졌다. 각 과

를 대표해 선정된 2021 올해의 이화인(1991년 졸업생)은 총 50명으로, 이날 현장에는 27명의 동창이, 줌을 통해 9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올해의 이화인을 축하하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인사말과 임진(작곡 72) 감사의 축사가 있었고,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의 임원 소개에 이어 한미경(물리 88) 총무가 1991년부터 올해까지 약 1,260여 명을 배출한 올해의 이화인에 대해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2021 올해의 이화인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과 봉사, 섬김의 이화 정신을 발휘하며 성장해 온 동창들의 면면이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격려, 이화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나누었다. 2020 올해의 이화인 대표이기도 한 최혜정 지역부장은 지난해 이화인들이 함께 맞춘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와,



“올해의 이화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친구를 종합선물세트처럼 얻게 되었다”며 “올해의 이화인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이화인, 총동창회에도 관심 갖는 이화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곡미 사업부장은 2019년에 결성된 이올(올해의이화인 연합 모임)을 소개하고, 이올 사회 봉사활동, 전시회나 학창 공연 및 바자회와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소개했다.

## 제6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4명 선정

총동창회는 4월 27일(화) 오후 1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제6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선정 위원회(이경숙 고문 등 7명 참석)를 열고 후보로 추천된 6명 중 무기명 투표로 4명의 동창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신해림(의학 81, 세계보건기구 전 국장), 나효신(작곡 82, 재미작곡가), 박신정(조소 85, 하슬라아트월드 대표), 송명주(과교 92, 삼성전자 전무) 동창이다. 총동창회는 2016년부터 ‘빛나는 이

화인’상을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금3돈의 이화 마크 메달을 제작, 수상자에게 기념패와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동창 참여 늘릴 것

5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5월 정기임원회가 줌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사회를 맡은 한미경 총무는 참석 29명, 위임 5명, 불참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찬송에 이어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 김인정(컴공 87)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및 임선희(경영 88) 회계의 회계보고가 통과되었고, ‘지회 간담회’와 ‘감사찬양예배’ 평가,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안건 토의가 있었다.

신임 임원으로 정진숙(행정 89) 홍보부장과 김구슬(법학 93) 부총무를 소개하고,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할 김구슬 부총무는 내년 부서 개편 때까지 부총무 직함으로 활동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어 행사 평가가 있었다. 4월 20일(화) 열린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 모임에는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으로 선정된 41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선교 활동 활성화 및 감사찬양예배와 성탄예배, 선교사 환송예배 등의 협력을 통해 선교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끌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각 과, 대학(원),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는 4월 22일(목) 1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돼, 각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 북미주 지회와 아시아 지회, 파리 지회 등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부를 소개하는 등 시공간을 넘어선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창들은 감동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총동창회에서는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참석한 전원에게 총동창회 기념품을 발송하였으며 기념품을 받은 해외 회

원들의 감사 인사도 전했다.

감사찬양예배는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을 알리고 동창들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성시열(의학 81) 의대 회장은 원주와 대전 등 멀리 있는 동창들이 감사찬양예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달하며 감사찬양예배를 진행한 총동창회 선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올해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옥길 선생님이 자주 가서 기도했던 팔복동산에서 동창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에는 비 오는 날씨였지만 촬영하는 한 시간 동안 비가 그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체험하면서 이화인이 예배 안에 하나로 결속할 수 있었다고 감동을 전하였다. 이어 5월 31일(월) 예정된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 공지가 있었고, 「큰 스승 김옥길」 책자는 총동창회에서 2만 원에 추가 구입 가능함을 알렸다.

한편 사회과교육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을 추대하지 못했지만 50주년 재상봉 동창들이 총동창회에 평생회비를 후원하자는 의견을 모아 10여 명이 30만 원씩을 납입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알렸다. 또한 피아노과 30주년 재상봉 동창 4~5명이 평생회비 50만 원씩을 내주어서 감사하다고 알리며, 많



은 동창이 후원이사로 총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관 리모델링 후원 참여를 위한 약정서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이경숙 고문) 총동창회에서는 안내문 등으로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 동창의 날 행사 평가 및 하반기 주요 일정 논의

6월 정기임원회의가 6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줌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개회선언, 성원 보고와 함께 찬송,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김인정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과 임선희 회계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에게 중정하는 이화 마크 메달 제작비로 순금 3돈과 판형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수상자 4명과 작년 수상자 1명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설명하였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감사찬양예배 현금 1,090만 원 수익금으로 137명의 동창 선교사들에게 10만 원씩 송금했음을 알렸다.

제18대 총동창회 임원 사진 및 명단



고문 이경숙(영문 70), 김영주(유교 71)  
회장 남상택(물리 74)  
부회장 이명경(무용 77), 조미숙(식영 83)  
감사 임진(작곡 72), 신경희(수교 77)  
총무 한미경(물리 88)  
서기 김인정(컴공 87), 김현민(특교 89)  
회계 임선희(경영 88), 왕혜정(경영 89)

문화부장 박병희(약학 84)  
사업부장 김곡미(생미 87)  
재정부장 류예행(관현 88)  
음악부장 이승희(피아노 87)  
홍보부장 정진숙(행정 89)  
회우부장 주종미(체육 92)  
지역부장 최혜정(한음 90)  
선교부장 성혜옥(영문 70)  
정보통신부장 이영옥(컴공 92)

인문대학회장	이정화(독문 74)
사회대학회장	한상은(심리 84)
자연대학회장	최명선(생명 77)
공과대학회장	김미영(컴퓨터 85)
음악대학회장	최은희(종음 81)
조형대학회장	신영선(장미 88)
체육대학회장	전선혜(체육 83)
사범대학회장	한은주(특교 79)
법대·법전원회장	안미영(법학 88)
경영대학회장	윤은주(경영 89)
의과대학회장	성시열(의학 81)
간호대학회장	변은경(간호 83)
약학대학회장	김용재(약학 82)
생활환경대학회장	김상희(가관 81)
국제학부 회장	이동은(국제학부 05)
대학원회장	이향숙(대학원 88)
교육대학원회장	양수화(교대원 74)
디자인대학원회장	김정숙(디대원 93)
사회복지대학원회장	남영안(사복대학원 21)
정책과학대학원회장	김순옥(정책대학원 19)
신학대학원회장	김경령(신학대학원 12)

의대 성시열 회장은 의대 졸업 50주년 동창이 9,700만 원, 졸업 30주년 동창이 3,000만 원을 모아 이과대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어 동창의 날 행사 평가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무대의 꽃 장식 준비를 위해 며칠 전부터 애써주고 일찍부터 리허설에 와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계획된 총동창회 행사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하였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 무대 자리에는 예년과 달리 역순으로 배치, 인문대가 뒤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골고루 자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매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2020 올해의 이화인들이 간식 주머니를 만들어 전달해 호평을 받았는데 새로운 전통으로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를 진행한 2020 올해의 이화인 대표 최혜정 지역부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중 박신정·송명주 동창이 총동창회에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김곡미 사업부장은 "올해의 이화인이 입은 한복을 천연 염색으로 변경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9월 6일~10일 온라인 3일장으로 예정)에 진행할 대바자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도 온라인 바자회로 진행할 것에 대비해 아이템 선정과 동영상 제작에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추석을 감안해 상품은 7월 말까지 선정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홈쇼핑처럼 줌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주문 받아 판매하자는 건의도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안전으로, 이올(올해의이화인 연합 모임) 창립 총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홍콩 지회가 설립 50주년 맞아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총동창회에서 축하 기념품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부 소식

### 각 과 및 대학에 새로 선임된 선교부장 모임 가져

4월 20일(화) 오후 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비대면 줌 영상으로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 41명 중 27명의 새로 선임된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들이 참석하였다. 김세희(성약 05) 동창의 찬양 인도로 시작, 이명경 총동창회 부회장의 사회와 최수현(기독 92) 인문대 선교부장의 기도,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과 기도모임 및 선교부 연간 활동을 소개하였다. 먼저 두 개의 동영상으로 이화의 선교를 소개하였다. 하나는 2013년 남가주(LA) 지회 창립 60주년 축하를 위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당시 특별 제작한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3분짜리 영어 동영상이다. LA Ebell 극장에서 공연된 발레는 이화 동창들과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다른 영상은 2020년 이화 가족성탄예배 때 만든 이화 동창 선교사와 그 사

역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어서 김미순(기독 75) 동창이 이화대학 및 이화의료원과 총동창회와 선교부 그리고 5월 11일(화) 예정인 이화창립 135주년 감사찬양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주기도문 후에 이화교가를 랜선으로 합창하며 행사를 마쳤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미국과 한국의 동창이 연합으로 제작한 것이다. 각 과 및 대학에 선교부장들을 세울 수 있게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다.

글·이수진(조소 05)

## C. S. Lewis와 다시 걸어본 진선미의 이화동산 기도처

5월 25일(화) 이화동산 기도처 순례에 참가하였다.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제한된 인원만 다녀오게 되었지만, 총동창회 선교부 소속 각 과 및 대학 선교부장의 선임 이후 첫 대면의 자리라 봄 소풍 가는 어린아이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신촌으로 향했다.

### 총동창회 선교부 화요 정기 기도모임

기도처 순례에 앞서 오전 10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화요 정기 기도회를 줌으로 하였다(기도처 방문자들은 대강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김미순 동창의 사회로, 김세희 동창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새찬송가 524장) 찬양 인도 그리고 폐루의 오주엽(의학 81) 선교사의 코로나19에 어려운 정치 상황까지 더하여진 폐루 현지 상황을 애통해하며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김혜경(불어교육과 82, 태국) 선교사, 염승혜(서양 96, 태국) 선교사의 기도편지와 함정희(기독 74, 필리핀) 선교사의 긴급 기도제목을 나눈 후, 나라와 민족, 북한, 한국 교회, 열방, 이화대학, 이화여대 총동창회와 선교부, 이화의료원, 이화기독학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마지막으로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김세희 동창의 <내가 매일 기쁘게> 현금송(새찬송가 191장) 및 봉헌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당일 기도회를 마쳤다. 이후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이화 창립 135주년 감사찬양예배’ 유튜브 영상을 본 분들이 전한 감동을 공유해 주면서 위 영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속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였다.

### 진: 학생문화관 기도실(최순영, 이형자 기도실)

이화 동산의 총 15개의 기도처 중 당일 방문 예정지는 네 곳이었다. 성혜옥 부장과 이수진(조소 05) 간사의 안내에 따라 김귀주(동양 74), 윤헤령(경제 91), 흥미영(무용 88) 각 과 선교부장 그리고 필자가 첫 발걸음을 향한 곳은 학생문화관 241호 기도처였다.



이곳은 예배실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의 기도 공간으로, 이화의 학생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소망한 최순영, 이형자 두 사람의 도움으로 기립된 곳이라고 한다.(『이화의 선교행전』, 267쪽)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단체에 관한 설명을 성혜옥 부장에게 들은 후 주님의 진리 선포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드렸다.

기독교 변증가인 C. S. Lewis(1898~1963)는 『인간폐지』에서 당대의 상대주의 교육과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사회 전반의 확고한 신념에 대해 반박하며 이는 결국 '가슴 없는 사람' 만을 양산해 낼 것이라 경고한다. 이화 공동체가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학문연구의 전당이 되어 '가슴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이화의 첫 삽을 떴을 때의 바로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 선: 이화역사관 기도실과 애다 기도실

연록의 향연을 만끽하며 본관과 헬렌관 사이로 난 비탈길을 오르며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현재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리는 '우리들의 선생님 김옥길'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화역사관 기도실이다. 이곳은 이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정동 황화방에 있던 이화 한옥 교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고 한다.(『이화의 선교행전』, 266쪽). 기도실은 전시관의 끝에 자리하고 있다.

성혜옥 부장이 그 어느 도슨트보다 상세하게 135년 이화사(史)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앙의 목가(牧歌)로 들려주었다. 이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135년 전 이국만리 타향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화에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지식은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닌다. 이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135년을 이어왔다.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고린도 전서 2:16),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坦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이사야 40:4)가 되는 하나님의 선한 대로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이화역사관을 향해 올라간 길을 다시 내려오면서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본관 건물 3층에 자리한 애다 기도실이었다. 이곳은 1931년 이화여전 재학 중 소천한 김애다 동창을 기념하여 만든 곳으로 이화의 기도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이다. 김애다 동창이 5년간 투병 중에 드린 기도가 당시 신촌 교사 이전 문제로 고심하던 아펜젤러 교장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고자 본관이 완성되던 해(1935년)에 명명되었다고 한다.(『이화의 선교행전』, 263쪽)

성혜옥 부장이 기도실에 놓여 있는 『기도수첩』에 적힌 기도문을 읽어주었다. 필자는 이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의 선한 빛과 소금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 불멸의 영광이 된 이화의 한 선배와 이를 본받아 청년의 때 울며 믿음의 겨자씨를 뿌리는 한 후배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감격을 김귀주 부장의 이화의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윤혜령 부장의 이화가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홍미영 부장의 이화의 땅을 다시 밟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에 필자의 기도를 더하여 표하였다.

이화 공동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를 낫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빌립보서 2:8)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각 부르심의 분깃에 따른 선한 소명을 족히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C. S. Lewis는 『고통의 문제』(141쪽)에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인간의 끝 없는 욕망을 처음으로 거스르는 위대한 사랑을 시작한다”고 쓰고 있다.

#### 미: ECC 기도실(이미화 기도실)

ECC 지하 2층 261호에 자리한 이곳은 최귀한(약학 56) 동창이 딸 이미화(사회 82) 동창을 위해 기부하면서 시작되어 이화의 대학교회 성도들의 기부와 김찬종 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곳이라고 한다.(『이화의 선교행전』, 265쪽) 기도실 내부를 수많은 블록들로 가득 채우며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기립된 이곳에서 이화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와 성혜옥 부장과 김귀주 부장의 각 마무리기도로 네 곳의 순례 여정을 마쳤다.

C. S. Lewis는 『The Weight of Glory』에서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그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거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처럼 그 사람 속에 참으로 감추어져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우리 이화 공동체가 인간에게 내재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인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 그리스도의 향기인 총동창회 선교부

2021년 4월, 각 과 및 대학의 선교부장들이 하나님의 진선미 공동체인 이화에 모였다. C. S. Lewis는 『네 가지 사랑』(207쪽)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중략)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피력한다.

현재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를 누비고 다니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수는 약 140여 명이다. 필자는 선교부 화요 기도회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 편지를 나누면서 선교사들의 각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로마서 7:4)을 보고 들음으로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이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선교부를 섬겨 온 수많은 선배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기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필자를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가 후렴구를 나지막이 불러본다. 이화 이화 우리 이화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_\_\_\_화.

글·임복희(행정 93, 행정학과 선교부장)

## 김옥길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화의 큰 스승이자 모교 제8대 총장을 역임한 김옥길(1921~1990)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4월 16일(금)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 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장상·이배용·김선우 전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및 주요 보직자와 김옥길기념사업위원회 등 교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오후 1시 김옥길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로 막을 열었다. 김정선 학사부총장의 사회와 안선희 교목실장의 인도로 문을 열었으며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성경봉독, 한국음악과 류정연 교수의 특별 연주에 이어 장상 전 총장이 ‘넉넉한 잔치’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17~19쪽 참조)

김은미 총장은 “김옥길 선생님이 제8대 총장으

로 봉직한 18년의 기간 동안 이화는 종합대학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수월성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고 강조 했다. 또한 김옥길 선생의 유고집 『열린 대문과 냉면 한 그릇』의 일화를 소개하며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선생님 뜻을 기렸다.

이어 〈이화의 거인, 김옥길〉 다큐멘터리 상영과 『큰 스승 김옥길』 사진집 현정의 시간이 마련됐다. 모교는 2020년 7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화역사관과 출판문화원이 사진집의 공동 작업을, 조형예술대학 유현정 교수 팀이 다큐멘터리의 공동 제작을 맡았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은 현정사를 통해 “김옥길 선생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화 가족들이 자진해서 공동 작업에 참여했고, 우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과 다시 만났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담대하고 단호한 리더십과 넉넉하고 따뜻했던 마음의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이화인문과학원(원장 김경미)이 주관한 ‘제18회 김옥길 기념강좌’가 ‘인공지능, 감정, 휴머니즘’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기념 강좌에는 세계적 ‘AI 연구 분야 석학’ 스튜어트 러셀(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컴퓨터과학 교수이자 옥스퍼드대 워담컬리지 명예 교수)이 연사로 초청돼 ‘Human-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



화인문과학원 신상규 교수와 신산업융합대학 남양희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모교 후문에 위치한 김옥길기념관의 개관식도 함께 거행됐다. 김옥길기념관은 김옥길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동생인 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 선생님이 지은 곳으로, 김동길 선생님이 김옥길 선생님이 살던 집과 김옥길기념관을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생님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을 계기로 일반인 관람도 계획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 계획이 안내될 예정이다.

## THE 세계대학평가 젠더평등 부문 2년 연속 국내 대학 1위

모교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THE 세계대학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2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 QS세계대학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랭킹으로 꼽히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2019년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Impact Rankings)를 신설했다. 영향력 평가란 대학들이

UN의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82위를 기록해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개별순위가 발표되는 영예를 얻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과 빈곤 구제에 관한 부문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 모교는 ‘빈곤 종식(No Poverty)’ 부문에서 세계 84위를 차지, 국내 대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개최

모교는 5월 31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Ewha Vision 2030+〉를 선포했다. 올해 기념식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신하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안선희 교목실장, 표창 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과 ‘이화학술상’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미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통찰을 통해 본연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발전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연구 분야 10개, 미래형 도전연구 분야 10개를 집중 육성하

는 ‘프론티어 10–10 사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의 일환인 ‘국내 최초 학부 인공지능대학 설립’, 신촌캠퍼스–목동병원–서울병원을 잇는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마곡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및 제약기업–산학협력단–병원 협력 확대 등을 시행하며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화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근속 교직원 표창

모교 재직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총 113명)을 대표해 진민옥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교사, 김용표 화학신소재공학전공 교수, 구칠회 건축팀 과장이 표창을 수상했다.

#### ▲‘제19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시상

‘제19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에 선정된 1세대 여성학자 장필화 여성학과 명예교수와 생태학자 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생명과학전공 초빙 석좌교수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은 모교 동창 혹은 모교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 ▲‘제17회 이화학술상’ 시상

‘이화학술상’은 모교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학문 및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에 대하여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철학과 한자경 교수, 수학과 고응일 교수, 약학과 하현주 교수가 수상자에 선정됐다.

#### ▲〈Ewha Vision 2030+〉선포

김은미 총장은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화는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여 옛것과 새것, 지속과 변화를 통합하는 법고창신의 정신하에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화의 발전 계획을 담은 〈Ewha Vision 2030+〉을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모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미래 사회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첨단분야 교육 및 온오프 통합기반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공감과 포용에 기반한 공생을 추구하며, 가치나눔과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총장은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 리더 양성의 소명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새로운 슬로건 발표

모교는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재학생·교직원·동창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6건의 공모작이 접수되고,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개투표에는 2,7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비전과 모교 발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슬로건은 투표 결과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Ewha, The Future We Create’로 최종 확정됐다.

## 이화여자대학교 비전선언문

1886년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한 이화의 역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역사이다.

이화는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공동선을 창출해왔다.

이화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혁명, 코로나19 팬데믹, 양극화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인간과 문명, 개인과 공동체, 인류와 지구의 존재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또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는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여, 옛것과 새것, 지속과 변화를 통합하는 법고창신의 정신하에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화의 발전 계획을 담은 〈Ewha Vision 2030+〉을 수립, 선포한다.

하나, 이화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미래 사회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 이화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첨단분야 교육 및 온오프 통합기반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하나, 이화는 공감과 포용에 기반한 공생을 추구하며, 가치나눔과 사회공헌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한다.

이화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고자 한다.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 리더의 양성이라는 소명을 성실히 달성해 나갈 것이다.

2021. 5. 31.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소식

## 약학대학

회장 \_\_ 김용재(약학 82)

### 약대 선교부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

5월 11일(화) 약대 선교부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줌을 이용해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와 미국에 있는 동창 두 명(약학 60) 포함 25명이 참석하였다. 약대 선교부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

올해의 이화인을 포함한 1991년도 졸업생들은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졸업 50주년·30주년 되는 동창들이 약학

연구소 후원금, 주홍장학금, 동창회 발전기금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데 올해는 직접 참석하는 대신 동영상으로 전달하였다.

5월 21일(금) 저녁 8시, 임원 및 기 대표회를 줌을 통한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였는데 47명이 참석하였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졸업 후 2~3년 된 젊은 기 대표들과 회의를 할 수 있었고, 8월 출간하는 동창회 소식지와 10월 정기총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호대학

회장 \_\_ 변은경(간호 79)

### 고(故) 이정애 교수 추모예배 및 제60회 정기총회 온라인 개최

5월 12일(수) 간호대학 김옥수(간호 80) 학장과 변은경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고 이정애 교수를 추모했다.

또한 제60회 동창회 정기총회를 5월 28일(금)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정기총회는 매년 창립기념일에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2020년 동창회 사업 및 예·결산 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최미선(간호 91) 동창이 선정되었으며, 졸업 50주년(13회)·졸업 30주



동창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약대 졸업 30주년 동창들

년(33회) 동창들이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창 재상봉 행사를 2년 연속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면 행사를 통해 동창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기총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최화숙(간호 89) 동창이 인하대병원 간호본부장으로, 김보영(간호 89) 동창이 건국대병원 간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장희정(간호 85) 동창이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장에 임명되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한 간호대학 동창회

##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지연(75)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금 전달식**  
5월 14일(금) 모교 총장실에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지연 회장과 남재은(68) 독어독문학과 장학위원회 회장은 김은미 총장에게 독어독문학과 동창들이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기금은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독어독문학과의 많은 동창들이 참여해 모은 것으로, 총 모금액은 독어독문학과 장학위원회의 후원금 500만 원과 3회 졸업생 이자 인문학연구소 소장 김정옥(69) 동창의 5억 원을 포함한 5억 5,055만 원이다.

한편 대외협력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어독문학과 동창들의 기부금까지 더하면 위의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진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 동양화과

회장\_\_이보경(89)

### 후배들의 메이데이전 응원

5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동양화과 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 '메이데이전'이 열렸다. 동창회는 수고한 후배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비대면으로 지급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 종교음악과

회장\_\_오지영(88)

### 감사찬양예배에 특송 봉헌

5월 11일(화) 모교 창립 135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에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이 베추얼 콰이어 (Virtual Choir)로 제작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현철 곡)〉를 특송으로 봉헌하였다.

교회음악 전반을 연구했던 성악·피아노·오르간 3개 전공의 종교음악과라, 이번 특송에서 반주 와 노래, 지휘까지 오롯이 모두 과 동창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들까지 참여하고, 1975년 졸업 동창부터 2013년 졸업 동창까지 참여하면서 국경과 세대를 넘나든 아름다운 참여로 많은 이화 동창의 사랑을 받았다.



국경과 세대를 넘어 만들어 낸 합창을 봉헌한 종교음악과

## 서양화과

회장\_\_조은정(85)

### 1회 졸업생 신금례 동창과의 인터뷰

서양화과는 이화의료원과 조형예술대학 ECA센터에서 'EUMC-Fair'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대서울병원 C관 2층 아트큐브에서 오픈하였다. 4월 1일(목)부터 30일(금)까지 'Part I, 학생전'을, 5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Part II, 동문전'을 진행하였다. 'Part II, 동문전'은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과 동창 140여 명이 33×33cm 의 동일한 규격의 작품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는 'EUMC-Fair'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과 구매가 가능했다.



EUMC-Fair를 진행한 서양화과 동창회



1회 졸업생 신금례 동창과 인터뷰를 진행한 서양화과 동창회

판매금의 일부는 병원에 기부하였고, 일부 작가들은 작품을 기증하였다. 'EUMC-Fair'를 통해 신진 및 중진 작가들의 기량과 열정이 전해진 행사였다.

4월 3일(토) 서울 종로구 경운동 녹미미술문화협회 사무실에서 신금례(49) 동창의 인터뷰가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술대학 졸업생이자 모교 서양화과 제1회 졸업생인 신금례 동창을 인터뷰하기 위해 채정수(83)·조은정·안혜리(91)·정선주(94)·박혜성(98) 동창이 한 곳에 모였다(촬영 및 편집 : IWOO MEDIA(함윤수)).

신금례 동창은 현재 96세이지만 아직도 현역 화가로 활동 중이며 인터뷰 내내 활력과 웃음으로 후배들과 공감을 나누었다. 코로나19로 방청객 수를 제한한 인터뷰는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신금례 동창의 성장 배경,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대학 시절 에피소드, 남편 이자 세계적인 화가 남관 화백과의 추억, 여류 화가로서의 삶, 작품에 담긴 의미 등 우리나라 미술사의 산 증인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다. 인터뷰 말미에 “이대 서양화과를 나와서 좋았고, 후회하는 것은 없고,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금례 동창과의 인터뷰 내용은 영상 기록물로 보관

할 예정이며, 한국 미술사에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소과

회장\_\_ 박신정(85)

### 릴레이 형식의 온라인 전시 업로드

제38회 이화조각회 온라인 전시 ‘조각가 길을 가다’는 5월 24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유튜브 채널(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을 통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작가 50여 명의 영상이 차례대로 업로드되고 있다.

5월 24일(월) 이정자(66)·유민자(78)·김희경(79)·이선희(81)·나진숙(84)·조미연(84)·서혜영(91)·김양선(94) 동창을 시작으로 총 50여 명의 이화조각회 조각가의 개성 있는 전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조소과 동창회에서는 ESAarts Award를 제정하여 학부, 대학원, 동창 작가 그룹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도에는 이수민(4학년) 학생, 기이한 감각국전 기획(강지연(18)·김보경(19)·김진선(19)·류정현(19)·정다정(19)·황혜린(19)·김현지(21)·주지한(21) 동창), 조각그룹 비(이희경(96)·박은선(98)·오수연(98)·이지향(98)·강선구(99)·안경하(99)·조수연(99)·차경화(00) 동창)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8회 이화조각회 온라인 전시를 업로드한 조소과 동창회

## 섬유예술과

회장\_\_전영선(88)

### 예미회장단 첫 정기회의

제32대 섬유예술과 동창 예미회장단의 첫 정기 회의가 3월 11일(목)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최유리(96) 총무 사무실에서 있었다. 회의에는 전영선·이상영(94)·최유리·장해림(02)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 선발된 예미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예미회의 2021년도 연간 일정을 검토했다. 세부적인 회의 주제로는 예미총회, Vision 이화미술인전 준비, 녹미회 임원 주소록 관리, 《이화동창》 계재, 회계재정, 예미회 회원들의 전시회 활동에 관한 보고와 지원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섬유예술과 동창 임원회의

회에서 미리 집으로 배송한 간식과 각자 준비한 음료를 마시면서 모니터 속 얼굴을 맞대며 오랜 만에 선후배 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온라인 동창회는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50여 명의 선후배가 함께 모여 만남의 인사를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동창 소개, 동창회 운영 안내를 공유했으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여 동창회에서 보내준 간식으로 차린 티타임 사진 경연, 모교 관련 O/X퀴즈, 상품권을 받지 못한 선후배를 위한 사다리 타기 등을 진행했다.

동창회에서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낯선 선후배를 위해 매뉴얼을 공지하고 사전 연락을 통해 연결을 도왔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온라인 동창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모임이 종료된 후, 많은 선후배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온라인 동창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5월 26일(수)부터 6월 1일(화)까지 마루아트센터 그랜드관에서 제37회 비주얼메시지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비주얼메시지는 생활미술과 동창으로 구성된 전시 모임으로 이영희(68)·박승화(85)·최유미(85)·원미진(88)·김수정(89)·유현정(91)·정진숙(93)·진현경(93)·김수진(94)·홍선기(96)·김도희(97)·박수진(99)·정승은(99)·김경주

## 생활미술과

회장\_\_원미진(88)

### 제37회 비주얼메시지 정기전 '뉴트로'

5월 15일(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동창회를 열었다. 동창들은 서울, 경기, 부산, 충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주거지에서 드레스코드인 화이트룩을 입고, 생활미술과 동창



온라인 동창회를 개최한 생활미술과 동창회

(05)·라지영(06)·엄윤경(07)·김린(08)·유다솜(10)  
동창이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뉴트로’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이전 것들에 대한 향수를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뉴트로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 (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색다른 신선힘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각 세대를 연결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작가들의 작품은 과거의 추억으로 시작하여 미래로의 여행을 상상하게 하며, ‘뉴트로’ 전시를 통해 여유와 감성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안하였다.

## 도예과

회장\_\_서혜수(88)

### 온라인으로 개최한 도림회 총회

3월 24일(수) 도림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총회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임원단 소개와 지난 임원단의 감사 인사와 함께 2020년 회계보고,



도림회 총회를 위한 영상을 촬영 중인 도예과 동창회

사업보고, 동창회원 활동 보고가 있었다. 한편 3월 30일(화)에 모교 조형예술대학 A동 이화아트센터에서 비전이화미술인전 오프닝을 하였다. 장자현(21) 동창이 도자예술전공에서 선정돼 전시를 하게 되어, 도림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 국제사무학과

회장\_\_오영란(89)

### 온라인 정기총회 및 신임 동창 환영회 개최

국제사무학과의 정기총회 및 신임 동창 환영회가 4월 24일(토) 동창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Zoom)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로 동창과 역대 회장, 현직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새 회장으로 오영란 동창을 선출하고 지난 회계를 결산하였다. 지난 2년간 동창회를 위해 힘써준 정성휘(88)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올해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최애경(78)·우혜련(79)·황혜진(79) 교수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매년 인쇄물로 발간했던 이비회 소식지는 웹파일로 제작되어 동창들에게 전달하였고, 정덕임(94) 부회장이 진행한 퀴즈 시간은 동창들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오영란 신임 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총회 및 신임 동창 환영회를 진행한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 디트로이트 지회

회장 \_\_ 황수영(화학 89)

###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에 매진

202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인 디트로이트 지회는 총회 참석자들의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시간 북부 여행지 답사를 마치고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여행 장소와 일정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영상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창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영상 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아이디어와 재능 나눔을 통해 총회 준비를 돋고 있다.

그 첫번째 결실로, 1월부터 준비한 북미주지회 연합회 회보를 4월에 발간하여 5월까지 각 지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번 회보를 통해 디트로이트



영상으로 치러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아이디어와 재능 나눔을 활발히 하고 있는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들

트 총회의 주제인 'Rise and Shine'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 각 지회의 활동을 공유하였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In-site 바자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기증한 중고물품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지역 사회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시도하여 지회 활동에 필요한 기금 모금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멜버른 지회

회장 \_\_ 신은미(사회 99)

### 보타닉 가든 안에서 싱그러운 모임

멜버른 지회는 2021년 첫 모임을 3월 27일(토) 멜버른 보타닉 가든 안에 있는 카페 테라스에서 가졌다. 늦여름의 싱그러움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가을 햇살의 눈부심을 느끼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들 고국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며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료되기를 바랐다.

이날 모임에는 멜버른 로얄 칠드런스 호스피털에 연구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순천향대 소아과 전문의이자 부교수인 이현정(의학 03) 동창이 참석해 다른 종류의 백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재 진행 중인 백신 롤아웃 등을 알기 쉽게 설명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정담을 나눈 멜버른 지회 동창들

해 주어, 동창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 코로나19 이후 처음 갖게 된 골프 나들이

5월 18일(화) 북가주 지회의 골프팀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골프 나들이를 했다. 이날 참석한 12명의 팀원들은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덕담을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골프를 즐겼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월례 모임을 6월 5일(토)에 대면으로 가질 준비를 하며 모두들 들떠서 지내는 축복



골프 나들이로 그간의 그리움을 해소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차희숙(제육 77)

#### 선교부와 골프부로 대면 모임 시작

애틀랜타 지회는 코로나19로, 한 달에 한 번 줌(Zoom) 영상 미팅으로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교부장 조성숙(기관 64) 동창 이하 선교부 기도 용사들은 1년 2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다. 5월 17일(월) 첫 대면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황성희(유교 74) 목사의 “믿음은 확신이고 선포”라는 말씀이 있었다. 선교사들과 모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골프부도 4월 21일(수) 봄바람과 푸른 벌판을 향해 첫 라운딩을 시작했다. 조수현(수학 76) 부장 이하 16명의 동창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고, 상품과 참가상도 푸짐하게 받았다. 이화 동창 야유회는, 올해 6월 13일(일) 오후 1시에 McDaniel Farm Park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16개월 만의 대면 동창 모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임원들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첫 라운딩을 시작한 애틀랜타 지회 골프부 동창들

##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서혜경(정외 90)

### 온라인 합창클럽과 국제재단 세미나 진행

3월 10일(수)부터 6주간 온라인 합창클럽을 진행하였다. 주미향(피아노 00) 음악부장과 오해리(피아노 05) 지휘자, 박나애(성악 10) 성악 코치의 지도로 발성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한 곡을 완성하였다.

4월 워싱턴DC 지회의 웹사이트를 여러 임원과 동창들의 수고로 새롭게 오픈했다(<https://ewhadcchapter.org/>). 새로운 웹사이트가 워싱턴 DC 지회의 소중한 과거를 간직하고 현재와 미래를 그려가며 세대를 아우르는 귀한 소통의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한다.

5월 14일(금)에는 하인혁(현 이화국제재단 이사 및 발전위원회 회장)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이화의 국제재단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화국제재단의 역사와 현재, 재단 운용과 기금 현황 및 향후 국제재단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에게 모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HOPE FUND 기금 마련 모금 운동에 워싱턴DC 지회도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화국제재단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 \_\_ 문성애(생미 81)

### 젊은 동창과 함께하는 활기찬 모임

3월 모임에는 8명이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Rocky River에 사는 허선우(서양 04) 동창이 처음 참석했다. 지난해 신성이(컴공 93) 동창 이후 다시 한 번 젊은 동창이 참석해 주어 평소보다 활기찬 모임이었다. 대선배 김정진(의학 72) 동창이 오하이오와 모교에 얹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어 함께 재미나게 들었다.

4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열린 모임에서는 이화국제재단 이사 하인혁 교수의 줌(Zoom) 프리젠테이션과 국제재단에 대한 Q&A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제재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 좋은 기회였다. 모처럼 나온 김예경(사회과교육 96) 동창을 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경험담을 나누며 늦게까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5월 마지막 수요일에 8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이후 모임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2년 콘체르토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전희선(의학 88) 동창이 <Rachmaninoff Prelude op.23



줌을 통해 온라인 모임을 나누고 있는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no.5> 연주 녹음 링크를 공유했다.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생 후반기에 맞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끝마치지 못하고 아쉬운 만남을 마감해야 했다.

## 토론토 지회

회장\_윤미경(사복 93)

### 싱그러운 봄 기운을 만끽한 하이킹

모교 교정에 활짝 편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추운 토론토에는 언제쯤 봄이 오고 여름이 올까 그리워 섞인 기다림의 나날이 길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봄날을 맞이하여, 하이킹 동호회는 동창들과 함께 Trail을 걸으며 싱그러운 봄 기운을 만끽하는 설레는 만남을 가졌다. 모두의 마음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미소 짓게 만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동창들의 사업체를 돋기 위하여, 토론토 지회 웹사이트에 ‘동창 비즈니스’ 항목을 개설하였다. 무료로 광고를 실어 동창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돋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토 지역 사회에서는 2019년 무산되었던, 장



하이킹을 통해 싱그러운 봄 기운을 만끽한 토론토 지회

장 50여 년간 한인 사회의 열망인 무궁화 한인 양로원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극적으로 찾아와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유인희(체육 56) 동창은 “이곳을 처음 놓칠 뻔했을 때, 이화 동창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최초로 동창회 이름으로 모금 운동을 하면서 다른 대학 동창회들에게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한인 양로원이 있다는 것은 한인 사회에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곳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면 자손들에게도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대 동창들이 다시 한번 Leadership과 Giving 정신을 발휘하십시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교회를 통하거나 개인으로 기부를 하였지만 동창회의 이름으로 모금하는 일에 함께하고자 재차 기부를 해준 동창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 1만 3,150 달러 성금을 모아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이화 토론토 동창회의 선한 영향력을 선보였다.

## 파리 지회

회장\_윤애영(서양 88)

### 비대면으로 개최된 재불 이화 동창회 정기총회

3월 5일(금) 저녁 8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재불 이화 동창회 정기총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줌을 통해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 12월의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자리였다.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1부에서는 재불 이화 동창회 임원들의 소개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 및 회계 보고가 있었고, 2부에서는 퀴즈를 중심으로 한 친목



비대면으로 총회를 치른 파리 지회

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간단한 한글 초성 게임으로 워밍업을 한 후 임원진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화 역사 퀴즈가 이어졌다. 모교 곳곳의 사진과 함께 진행된 퀴즈를 통해 동창들은 추억을 회상하며, 각자 학창 시절의 이화를 얘기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비대면 총회는 프랑스 파리 이외 각 지방에 살고 있는 동창들도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반면 비대면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익숙지 않은 동창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는다.

프랑스는 현재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점점 봉쇄를 풀고 있는 분위기이나, 금방 예전처럼 정상적인 대면 모임을 계획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재불 이화 동창회 임원진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임원진(회장 박윤옥, 회계 이경희(무용 87), 총무 김은아(교육 91))이 유임하여 필라델피아 동창회를 이끌기로 2020년 12월 줌 동창회에서 합의하였다. 4월 부활절을 맞아 김영애(국문 62) 동창의 아이디어로 짧은 부활절 드라마를 극본화하여 줌으로 13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함께 드라마를 만들었다. 제자들, 유대종교 지도자들, 군중 등 극 중 인물이 많아 모두 1인 2역을 하였고, 내레이터, 찬양 담당자가 있어 부활절 당시의 상황을 새겨 보며 이해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많은 동창들이 백신 접종을 하였으나 아직은 대면으로 모이긴 이른 감이 있어 줌 동창회로 모이는데, 매월 주제를 정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동창회를 하고 있다. 동창회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70여 동창들에게 일일이 편지와 전화로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동창회 주소록을 완성할 예정이다.



매월 주제를 정하고 줌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필라델피아 지회

## 호치민 지회

###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원귀정(영문 89)

회장 \_\_ 박윤옥(간호 75)

### 팬데믹으로 인해 임원진 유임 결정

필라델피아 지회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작년

### 모교와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

4월 17일(토) 호치민 1군 한식당에서 동창 17명이 네 번째 모임을 가졌다. 신입 회원들도 참석하

여 자기 소개를 하는 화기애애한 대화의 시간을 보내고 회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호치민 지회는 모교와 베트남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여러 차례 모여 후원 및 봉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왔다. 일단, 모교의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후배들의 새로운 학습 공간 건립 후원에 동의하였다. 현재까지 모인 회비에 앞으로의 정성을 모아 이화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학관 리모델링 사업에 뜻을 보태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 지역 사회 후원 및 봉사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리서치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일단 김민영(정외 04) 동창의 제안으로 교육받지 못한 거리의 아이들을 선별하여 세프, 서버, 관광 가이드 등으로 교육시키는 'STREET'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한-베 가정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와 급식비를 후원해 주자는 의견도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동창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형태의 후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행동하는 봉사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후원 및 봉사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호치민 지회 동창들

호치민 지역 내에서의 동창 바자회를 진행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물건만 파는 바자회가 아닌 이화인만의 특별함이 있는 행사로 고민해 보기로 하였고, 수익금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았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과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 보기로 하였다.

## 홍콩지회

회장\_\_한유미(융합보건 90)

### 홍콩의 중심에서 이화를 외치다!

5월 27일(목), 13명의 동창들은 홍콩의 중심지인 센트럴 지역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콩 지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홍콩 지회 50주년 및 이화 창립 135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방해자(교육 66) 동창이 초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홍콩 지회를 그간 이끌어 온 방해자·이명희(무용 64)·정도경(사복 81)·최명성(교공 76) 동창의 회고와 함께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참석한 동창들의 특징을 듣고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Guess Who?' 게임이 유쾌한 추리 속에 진행되었으며, 게임 승자 및 럭키드로우에 뽑힌 동창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수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한 권씩 준비해 와서 교환하고, 모두를 위해 푸짐하게 준비된 선물들을 나눠 갖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이날의 모임이 마무리 되었다.

1970년대 초 결혼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이 모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는 방해자 동창은 초창기의 홍콩 지회 모임을 회고하며,



홍콩 지회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모임을 가진 홍콩 지회 동창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팥죽을 전달한 휴스턴 지회

“1970년 경 초창기는 우리 한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이화 동창 모임은 항상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생에 큰 힘이 되었지요. 대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선배들은 사랑과 배려로 베풀며 후배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와 주길 바랍니다. 이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애정 넘치는 뭉클한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한유미 회장은 지난 4월 22일(목)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총동창회의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에서 나눈 총동창회 소식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그리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보내준 50주년 축하 영상을 함께 감상하였다. 홍콩 지회에 대한 모교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휴스턴 지회

회장 \_\_ 한승희(사학 85)

### 드라이브 스루 팥죽 나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을 지치고 답답하게 지

낸 동창들을 위하여,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팥죽 나눔 잔치가 1월 14일(목)에 있었다. 여럿이 만나서 팥죽을 만들고 전달할 수가 없어 각자의 집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휴스턴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방문하는 동창들에게 팥죽 50개를 일일이 전달하였다. 바깥 외출을 하지 않는 동창들에게는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하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화의 사랑을 전달하였다.

2월 설 명절에는 지난 24년간 휴스턴 지회의 전통이었던 구정대잔치를 노인회관에서 열지 않고 노인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준비해 간 떡국과 반찬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치렀다. 또한 휴스턴 노인회를 위한 후원금 1,000달러를 노인회장에게 전달했다.

지역 장학생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4월 22일(목)에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뒤, 장학 기금을 마련했다. 5월 15일(토)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젊은 동창들 중심의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창회 활동을 대면으로 할 수 없어 미술사 강좌 및 북클럽을 매주 혹은 매달 줌(Zoom) 미팅으로 진행하며 선배·후배·동기 간에 소통의 문을 열고 있다.

고(故) 조화숙(동양 49)·현병유(영문 51) 동창  
조화숙 동창과 현병유 동창이 각각 5월 9일(일)과 5월 7일(금)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조화숙·현병유 동창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1년 파리에 재불이화동창회를 창립하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화숙·현병유(사진 왼쪽) 동창

### 손순생(사회과교육 60) 동창

손순생 동창이 토론토 ‘무궁화요양원 범교민 모금운동’에 2017년 5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최근 5만 달러를 더 보태 총 1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이 소식은 캐나다 한국일보에도 소개되었다.

### 조정현(도예 63) 동창

4월 9일(금)부터 7월 18일(일)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한국생활도자 100인전–뿌리를 만나’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 전시는 한국의 생활도자를 대표하는 100인의 작가를 릴레이 초청하여 개인전 형식으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 김혜순(섬예 66) 동창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승 취약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4월 27일(화) 한국문화재재단과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3인의 장인



김혜순 동창

을 선정하여 3,000여만 원의 전승 활동 지원금을 전달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인 김혜순 동창이 위의 3인 중 한 명으로 빌터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 김매자(체육 66) 동창

6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이틀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깊은 여름>을 무대에 올렸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015년부터 진행중인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술마을 프로젝트’의 ‘명인 시리즈’ 세 번째 무대이다. 전 생애에 걸쳐 한국춤의 현대화에 공헌하며 한국 창작품의 대모로 인정받은 김매자 동창의 이번 공연은 김매자 춤의 대표작과 춤 정신을 일대기적 장면들과 함께 풀어내었다.

### 원문자(동양 66) 동창

4월 20일(화)부터 5월 3일(월)까지 아트비트갤러리에서 개인전 ‘새로운 시각의 사유공간’을 열었다. 포토 아트 기법을 토대로 전혀 다른 지필묵 이미지로 변신시킨 작품을 선보였다.



원문자 동창

### 양수화(종음 71) 동창

5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제12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 및 글로리아오페라단(단장: 양수화) 창단 30주년 기념으로 G. 베르디 작곡 <아이다>를



양수화 동창

공연하였다.

### 박일순(조소 74) 동창

4월 2일(금)부터 5월 16일(일)까지 서울 스페이스 미음에서 '감성의 승고미, 지극한 오만' 초대 전을 개최하였다.



박일순 동창

### 이미연(동양 76) 동창

4월 1일(목)부터 28일(수)까지 남송미술관 별관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에서 열린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전에서 초대 작가로 전시를 하였다.



이미연 동창

### 조은미(무용 78) 동창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에서 주최한 '제31회 2021 댄스비전 시상식'에서 무용교육자상 수상자로 조은미 동창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3월 13일(토)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다.



조은미 동창

### 하현주(약학 81)·한자경(철학 81) 동창

하현주·한자경 동창이 제17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31일(월) 모교 창립 135주년 기념식에서 열렸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하현주 동창은 당뇨병성콩팥질환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신약 개발과 차세대 여성 약과학자 양성에 기여해 왔다. 한자경 동창은 동서양 철학의 핵심적 논제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서를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대중적인 감



하현주 동창



한자경 동창

각을 갖춘 입문서들을 통해 철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

### 문예실(약학 82) 동창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예실 동창이 완승의 결과를 얻으며 SK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다. 문예실 동창은 뉴욕주 약사, 변호사, 미국특허변리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펌 Jones Day의 파트너 변호사 및 Korea Practice Leader이다.



문예실 동창

조연수(도예 83)·이지은(도예 85)·김윤영(도예 91)·최윤이(도예 94)·이희원(도예 95) 동창  
4월 4일(일)부터 5월 15일(토)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린 '2021 환경도예가회 특별전-매끄러운 공간' 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한영실(도예 83)·홍순정(도예 90)·이은미(도예 91) 동창

4월 14일(수)부터 10월 13일(수)까지 경기도 헤이리 Ponetic Space에서 '그 사이에서 나를 마주친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박성희 동창

### 박성희(조소 85) 동창

4월 23일(금) 제20회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보존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정정엽(서양 85) 동창

4월 20일(화)부터 10월 24일(일)까지 서울식물원 마곡문화관에서 개인전 '조용한 소란' 전을 열고 있다.

### 김애란(서양 86) 동창

5월 11일(화)부터 6월 6일(일)까지 갤러리 카페 창의문들에서 ‘봄! 봄! 봄!’ 전시회를 열었다.

### 남여주(서양 86) 동창

3월 23일(화)부터 5월 23일(일)까지 갤러리 이레 개관 12주년 기념 ‘남여주’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 박혜성(서양 86) 동창

박혜성 동창이 『루이 비뱅,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를 출간했다. 박혜성 동창은 미술 에세이 작가로, 블로그 〈화줌마 ART STORY〉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박혜성 동창

### 변해정(서양 86) 동창

3월 31일(수)부터 4월 5일(월)까지 갤러리 라메르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이미영(무용 86) 동창

4월 21일(수)부터 5월 1일(토)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제35회 한국무용제전 <평화와 공존의 춤 'Good Dance-굿'>을 개최했다. 이미영 동창은 한국춤협회 이사장이며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미영 동창

### 김선영(조소 89) 동창

3월 30일(화) (사)한국재능기부 협회에서 대한민국 재능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선영 동창

### 김선주(서양 89) 동창

5월 14일(금)부터 21일(금)까지 아산병원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민세원(도예 89)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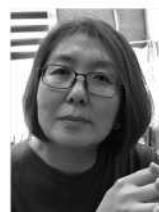
4월 9일(금)부터 7월 31일(토)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열린 ‘2021 한국도자디자인협회 국제도자특별기획전-온기의 사물’ 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박은덕(서양 89) 동창

3월 30일(화)부터 4월 10일(토)까지 파비욘드갤러리에서 개인전 ‘Time Series Data’를 열었다.

### 박현우(서양 89) 동창

3월 3일(수)부터 16일(화)까지 문화공간길담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안효숙 동창

### 안효숙(동양 89) 동창

5월 4일(화)부터 11일(화)까지 종로구 아트비트갤러리에서 ‘A Barrel of Danaides’ 전을 열었다. 인간의 속성을 깔대기 형상에 담아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다.

### 양수균(서양 89) 동창

3월 16일(화)부터 31일(수)까지 성옥기념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정연주(서양 89) 동창

4월 22일(목)부터 27일(화)까지 토포하우스에서 개인전 ‘바람의 기억’을 열었다.

### 박효실(서양 90) 동창

3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아트로직스페이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전을 가졌다.

### 김지혜(도예 91) 동창

4월 23일(금)부터 6월 20일(일)까지 열린 청주시 한국공예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다시 만난 세계’

: 유토피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박형주(서양 91) 동창

4월 13일(화)부터 24일(토)까지 박형주 동창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파비욘드갤러리에서 개인전 '마주 보다'를 가졌다.

#### 윤수미(무용 91) 동창

4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코튼홀에서 윤수미무용단 10주년 기념공연 <툰드라>를 무대에 올렸다. 윤수미 동창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수미 동창

#### 김덕희(도예 92) 동창

2월 18일(목)부터 3월 6일(토)까지 도쿄 Silvershell Gallery에서 개인전 'Somewhere'를 가졌다. 5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 'Art Busan'에 출품하였다.

#### 박효서(물리 92) 동창

박효서 동창이 유품공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박효서 동창은 법무법인 여명과 법무법인 평안에서 근무한 바 있다. 또한 박 동창은 지난 2월에 카이스트 문술대학원 지식재산프로 그램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효서 동창

#### 손정은(조소 92) 동창

3월 1일(월) 모교 조형예술대학 조소전공 교수로 부임하였다. 4월 25일(일)부터 5월 9일(일)까지 온수공간에서 기획전 '아트-리피케이션(ART-Rification)'을 개최했다.

#### 김기환(약학 93) 동창

김기환 동창이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신약연구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4월 2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신약연구소를 오픈하였다. 신임 연구소장을 맡게 된 김기환 동창은 바이오사업본부장을 겸임한다.

#### 김혜정(도예 93) 동창

3월 15일(월)부터 24일(수)까지 Space B-E gallery의 팝업스토어 'My Combination'에 참여하였다. 4월 13일(화)부터 5월 2일(일)까지 엘케이트 갤러리의 'Craft Made Space' 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나명희(물리 93) 동창

나명희 동창이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창은 2001년에 입사해 2019년까지 석학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관리자 등을 지내며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연구했다. 이 후 벨기에 반도체기술연구소 IMEC의 기술솔루션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나명희 동창

#### 백진(도예 93) 동창

4월 15일(목)부터 5월 13일(목)까지 조은숙갤러리에서 열린 'April Affordable Art Festival'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이인숙(도예 93) 동창

4월 16일(금)부터 6월 30일(수)까지 레스케이프 호텔 '취향의 발견' 패키지에 참여하여, 작품 전시와 함께 한정판 막걸리 전용잔(스위트 객실 투숙시 제공)을 선보였다. 또한 5월 26일(수)부터 30일(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이상영(섬예 94) 동창

5월 11일(화)부터 16일(일)까지 갤러리 아트로직스페이스에서 '미완의 유토피아—마음 방랑(The Unfinished Utopia\_Mind-Wandering)'을 주제로 초대전을 열었다. 이번 작품은 빛이 투과되는 노방에 기계자수로 수놓은 수많은 기와집 지붕들을 공간에 설치한 자수 조형 작업이다.



이상영 동창

### 이지원(무용 94) 동창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원 동창이 5월 14일(금)과 16일(일) 2021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우수강의교원상과 연구우수교원상을 수상했다.



이지원 동창

### 이예승(동양 98) 동창

3월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대미술(회화, 조형, 설치), 다원예술, 공공미술, 기술융합예술교육, 융합예술콘텐츠, 뉴미디어예술 등의 연구 분야를 강의 중이다



이예승 동창

### 민보영(동양 00) 동창

4월 21일(수)부터 30일(금)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우 갤러리에서 'Never Falling Trees'를 주제로 구상과 추상을 선보였다.



민보영 동창

### 강효주(한음 01) 동창

6월 13일(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강효주 동창이 <강효주 경기소리 격(激)>을 공연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



강효주 동창

요 이수자인 강효주 동창은 20여 년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모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기숙희(한음 01) 동창

5월 31일(월) 저녁 7시, 문화재청 2021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고택—풍악을 울리다> 프로그램에서, 기숙희 동창의 온라인 독주회가 강릉선교장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었다.



기숙희 동창

기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가야금앙상을 여울의 리더를 역임하고, 현재 실크앙상을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 오영란(종음 01) 동창

3월 3일(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귀국 하프시코드 독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오영란 동창은 2007년 피바디 음악원에서 전문연주자과정(Graduate Performance Diploma)을 졸업하고, 보스턴대학에서 2013년과 2019년에 고음악주학(Harpsichord)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를 받은 후 귀국하였다.



오영란 동창

### 이오성(동양 02) 동창

4월 21일(수)부터 27일(화)까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개인전 '우리들의 노래, 봄'을 열었다.



이오성 동창

### 장해림(섬예 02) 동창

4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시점(Viewpoint)'을 주제로 CICA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현대미술 개인전 시리즈'에 참여하였다.



장해림 동창

또한 장해림 동창은 김종영 미술관의 ‘2021 Creative Young Artist’로 선정되어 7월 9일(금)부터 8월 29일(일)까지 김종영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 마승연(무용 03) 동창

5월 10일(월) 오후 8시 모교 삼성홀에서 현대무용 단-팀(대표: 마승연)이 제41회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팀 무용단의 무용수,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승연 동창의 작품 <사막을 걷기>가 공연되었다.

### 맹성연(작곡 05) 동창

맹성연 동창이 작곡한 창작 뮤지컬 <포미니츠>가 4월 7일(수)부터 5월 23일(일)까지 서울 정동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포미니츠>는 동명의 독일영화(2006)가 원작이다.



맹성연 동창

### 김찬미(도예 12) 동창

3월 23일(화)부터 4월 11일(일)까지 갤러리H에서 ‘여행 feat. 마음’ 전을, 4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충무로갤러리에서 ‘Definitely, ART’ 전을, 4월 12일(월)부터 5월 2일(일)까지 갤러리아이엠에서 ‘식물원 가는 길’ 전을, 5월 16일(일)부터 19일(수)까지 조형아트서울의 ‘PLAS2021’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 정소윤(섬예 14) 동창

4월 30일(금)부터 6월 20일(일)까지 갤러리 식물관HP에서 ‘고요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하였다. 정소윤 동창은 재봉틀에 의한 가느다란 선의 반복으로 거대한 산의 능선들을



정소윤 동창

나타내어 고요한 풍경을 선사하였다.

### 김유라(도예 16)·송현송(도예17) 동창

5월 1일(토)부터 6월 30일(수)까지 갤러리카페 Art Major에서 열린 ‘4 for Yours-당신을 위한 4가지 결’ 전에 출품하였다.

### 김자영(도예 16) 동창

3월 23일(화)부터 4월 11일(일)까지 갤러리H에서 ‘여행 feat. 마음’ 전을, 3월 25일(목)부터 30일(화)까지 Noncontempo 2021 상반기 Living Week Baton 전을, 4월 26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프로젝트랩에서 ‘Garden of Artists’ 전을, 5월 19일(수)부터 6월 6일(일)까지 KCDF 갤러리에서 ‘오감각의 오브제 I: 앓고 서다’ 전을 가졌다.

### 신다인(도예 16) 동창

2월 23일(화)부터 4월 24일(토)까지 아줄레주갤러리 상설전 ‘One-Piece’, 4월 29일(목)부터 5월 15일(토)까지 ADM 갤러리의 ‘Rack Focus : Blurry But Clear’ 전에 참여하였으며, 5월 18일(화)부터 8월 29일(일)까지 플랫폼엘 미술관에서 ‘Unparasite’ 전을 열었다.

### 임다은(도예 16)

『Ceramics Monthly』 5월호에 소개되었다.

### 박지원(도예 18) 동창

5월 5일(수)부터 30일(일)까지 갤러리빔에서 개인전 ‘Bodily Moments – 사물의 단면’을 가졌다.

### 심현진(약학 19) 동창

5월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을 출간하였다. 심현진 동창은 현재 약사직능확대를 도모하는 ‘약국브랜딩연구소’ 카페를 운영 중이다.

# 동 창 이 펴 새 낸 책



## 안희숙, 석영 딸의 뜻다한 이야기

안희숙(음악 54)

안희숙 지음 / 서고

석영 안석주의 딸이자 원로 피아니스트 안희숙 동창이 2년 전 펴낸 자서전 「인생의 건반을 두드린다」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 신간을 펴냈다. 「서사시」 형식을 빌려 가슴속에 담아둔 기억을 시(詩)라는 장르로 풀어낸 책이다.



## 동환의 다리에서

김선진(국문 66)

김선진 지음 / 시문학사

김선진 동창이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 「동환의 다리에서」에는 「몸으로 올다」, 「2020, 봄의 실종」, 「파도는 늘 그랬다」, 「우우 일어서고 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등 주옥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김 동창은 한국현대 시인협회 이사, 국제펜한국본부 여성 작가위원회 위원장·이사, 이대동창 문인회 이사·감사를 역임하였다.



## 역사에서 길을 찾다

이배용(사학 69)

이배용 지음 / 행복에너지

역사학자이자 문화해설가인 이배용 동창이 대한민국 역사 속 유산과 기록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고종의 서재 「경복궁 집옥재」,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백미 중 하나인 「군영등록」 등 다소 낯선 역사유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배용 동창은 모교 총장, 대통령직 속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문화재청 세계유산

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피어리스(Fearless)

양정윤(유나양, 서양 01)

유나양 지음 / 수오서재

양정윤 동창은 2010년 자신의 이름을 건 'YUNA YANG'으로 뉴욕 패션위크에 데뷔했으며 이후 독특한 개성으로 할리우드 스타들과 세계 상위 1%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우먼스 웨어 데일리(WWD)》에 한국인 최초 커버스토리로 소개되고,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오사카 명품 백화점인 우메다 한큐 백화점의 '4인의 크리에이터'에 선정되는 등 한국 최초를 써 내려가는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로 성장하기까지의 일과 삶을 담았다.



## 큰 스승 김옥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화의 큰 스승이며 한국 현대사의 큰 어른 김옥길(문과 43)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사진집이다. 김옥길 선생님은 1961년부터 18년간 모교 총장으로 봉직했으며, 제24대 문교부 장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진집에는 김옥길 선생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120여 장의 사진들과 그를 추억하는 친구와 제자들의 글, 김옥길 선생님의 말과 글이 실려 있다.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서비스 최초 상류층결혼정보회사



SINCE 1999

# 에스노블

집안까지 생각하신다면 에스노블 회원이십니다



두 대통령가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 성혼율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 주의. 회사명이 유사한 A 노블, B 노블, J -, N - 등의 업체들은 당사 계열사가 아닙니다.

# 하슬라아트월드

H A S L L A   A R T   W O L R D

**HASLLA**  
ART WORLD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정동진의 바다

자연에 기대어  
예술을 감상하다



KOREA  
**UNIQUE**  
VENUE

2019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

 젊은달  
YOUNGWOL PARK  
젊은달와이파크

영월의 산

영월이 젊어지는 이유  
젊은달와이파크



  
한국관광의 별

2020 한국관광의 별 선정

복합예술공간